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말 서양 여성의 저술과
한국 여성 인식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부 영 심

2016년 8월

한말 서양 여성의 저술과 한국 여성 인식

지도교수 김 동 전

부 영 심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부영심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6년 6월

Writing and Understanding by Western
Women on Korean Counterpar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Young-Sim Boo
(Supervised by professor Dong-Ju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6. 8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Writing and Understanding by Western Women on Korean Counterpart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official start of westerners staying in Korea began as from United States-Korea Treaty of 1882. After diplomats and councilors hired by the Korean government during the time stepped on Korean peninsula, the westerners with various jobs came over to Korea. There were some western women among them, who were mostly either tourists for travelling or Protestant missionaries with the purpose of propagating the religion. The women left behind documents on their activities and works to report, or on their impression to introduce Korea to their own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how five western women, leaving their records on Korea, understood Korean counterparts. Their records were chosen because they could easily get close to Korean females than western males due to the social norm in Korea segregating females and males at the visiting time. In addition, they could closely see how the lives of their counterparts were led.

The five selected westerners are named I. B. Bishop, Constance J. D. Tayler, E. G. Kemp, L. H. Underwood, and E. Wagner. Three of them were tourists from Britain and the two were missionaries from USA. Although their nationalities and the goals to visit Korea were different, they had common features of belonging to the middle classes and having Christian thought. They were also single when entering Korea.

The range studied on this thesis covers, from their point of views, over marriage, housework, structure of the house, closed mind in dressing in connection with women in Korea as well as their living style affected by education and religion activities implemented by the westerners.

Firstly, the western women felt sorry for marriage practices in Korea and labor burdens loaded to Korean women after marriage. Three British middle-class female tourists who were affluent and free from getting marriage had negative views on Korea's social norms because they were put before laws and worked in favor of males. The most Korean married women, they witnessed, who were burdened with housework after marriage belonged to the working classes.

They, however, highly appraised assiduousness and faithfulness of Korean women attributed from the responsibilities for caring about housework and children all day.

Secondly, they did not understand the Korean residence style of a main house system, which prevented Korean married woman from seeing any other man except husband. They did not also understand the Korean style chador covered over when they were out. They, though, respected the way of Korean women's thinking that the freedom enjoyed by western women came from husbands' indifference while Korean husbands' interference was the way to protect them.

Finally, the activities for education and religion carried out by the missionaries had a big influence on Korean women. The schools established by the missionaries for Korean females who had taken only home education waked their consciousness and provided the ground for their social potential ability to be developed. Fathers especially in Songdo (current Kaesong) asked to establish a school to provide their daughters with the chance to be educated, promising teachers salary.

The western female tourists would be deeply moved when Korean women,

who depended on Korean shamanism, converted to Christianity. There was an occasion that a Korean woman approached to the missionaries in an unfamiliar country road to tell them about the Bible and to ask for shaking hands. At one church in Pyongyang a girl student recited all of the Bible. The events had the missionaries feel superiority complex for their nation.

Even though the purposes of western women visits to Korea were different, their impression on Korean women were quite similar. Given the difficulty of conversation, short visiting period, and meeting of limited Korean women, the perception of those western females on Korean counterparts might be very fragmentary.

Disinterment and supplement of more materials on this subject are expected in future.

목 차

Abstract

I. 머리말	1
II. 서양 여성의 한국 방문과 저술	7
1. 서양인의 한국 체류 배경과 활동	7
2. 서양 여성의 한국 체류와 활동	13
3. 서양 여성의 한국 저술과 내용	21
III. 서양 여성의 한국 여성 인식	32
1. 혼인 생활 제약과 가사 노동	32
2. 주거 공간과 복식 규제	43
3. 교육과 종교 활동이 끼친 영향	51
V. 맺음말	63
참고문헌	68

<표 차례>

<표 1> 한말 한국 방문 기록을 남긴 서양 여성과 저술.....	23
--------------------------------------	----

I. 머리말

1. 선행연구 검토

한국은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 이후 서양인들의 합법적인 입국과 상주를 허용하기 시작한다. 이후 서양과의 외교관계는 1883년 영국과 독일, 1884년 러시아와 이탈리아 그리고 1886년 프랑스 등으로 확대된다. 초창기 한국에 입국이 가능했던 집단은 서양 외교관이거나 한국 정부에 고용된 고문관들 이었다. 1884년 영국과의 조약 이후 선교사, 여행가, 상인, 학자, 기자 등 민간인들에게로 입국 허용이 확대되었다. 서양 남성들의 입국과는 달리 초창기 서양 여성들은 입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한국의 불안한 상황과 여성들의 외출이나 사회적 활동이 용인되지 않았던 한국의 사회적 규약 때문이었다. 이후 일반 서양 민간인들의 입국이 허용되면서 서양 여성들의 입국도 자유로워졌다. 이 시기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그들이 경험한 바를 기록으로 남겼는데, 기록 속에는 한국 사회를 경험한 일기, 여행기 혹은 선교활동에 대한 기록 등으로 한국의 정치, 문화, 생활풍속 등을 담고 있으며, 기록을 남긴 서양인들 중에는 여성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기록 속에 여성에 대해 한 장을 할애한 저자들도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먼저 서양인의 한국관을 다룬 경우들이다.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영국 여성 비숍의 한국 인식에 대한 연구가¹⁾ 가장 많고 그 외 헐버트,²⁾ 새비지 랜도어,³⁾ 뮐렌도르프,⁴⁾ 언더우드,⁵⁾ 와그너⁶⁾의 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또 다른

- 1) 김희영, 「오리엔탈리즘과 19세기 말 서양인의 조선 인식-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26, 경주사학회, 2007; 왕한석, 「개화기 서양인이 본 한국 문화: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4, 서울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1998; 이광린, 「비숍여사의 여행기」, 『진단학보』 71·72합, 진단학회, 1991.
- 2) 손정숙, 「구한말 헐버트(Homer B. Hulbert)의 대한인식과 그 활동」, 『이화사학연구』 22, 이화사학연구소, 1995; 이광린, 「헐버트의 한국관」, 『한국근현대사연구』 제9집, 한울, 1998.
- 3) 이영아,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 연구 : 새비지 랜도어(Arnold H. Savage Landor)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Corea or Cho-sen :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을 중심으로」, 『Homo Migrans』 3, 이민인종연구회, 2010.

내용으로는 서양인들이 바라본 한국, 한국인, 한국문화, 한국인의 인종적 특징, 한국 역사 등에 대한 관점을⁷⁾ 다룬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저자들이 여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 가운데 한국 여성에 대한 서양인들의 인식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홍이섭,⁸⁾ 이배용,⁹⁾ 변혜정,¹⁰⁾ 이영미,¹¹⁾ 김희영¹²⁾의 연구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홍이섭의 연구는 1962년 발표되었다. 그가 인용한 자료는 4명 서양인들의¹³⁾ 기록물이지만 샤를르 달레(Claude Charles Dallet)의 『조선교회사 서설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에서 대부분 인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¹⁴⁾ 이 책은 한국에 온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국에 대한 연구·조사·선교에 대한 보고형식으로 본국의

-
- 4) 김진각, 「윌렌도르프의 조선문명개화론」, 『역사교육』 46, 역사교육연구회, 1989.
 - 5) 윤종란, 「19세기말 조선의 안방을 찾은 미국 여성의 욕망- 여성교사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Lillias Horton Underwood)를 중심으로-」, 『史林』, 수선사학회, 2009.
 - 6) 김성은, 「한말 일제시기 엘라스 와그너(Ellasue C. Wagner)의 한국여성교육과 사회복지사업」, 『한국 기독교와 역사』 제41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4.
 - 7) 김상민, 「서양문헌에 나타난 한국: 정형화된 이미지와 사실의 간극」, 『동국사학』 제49집, 동국사학회, 2010; 손철배, 「서양인이 본 한국과 한국인」,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3』, 역사와 비평, 1999; 송재용, 「구한말 서양인이 본 한국 의례 일고찰」, 『동양학』 36,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2004; 오인영, 「서양인이 본 한국, 한국인」,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이해』,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2003; 이배용, 「서양인이 본 한국근대사회」, 『이화사학연구』, 이화사학연구소, 2001; 정연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서양인의 한국관 : 상대적정체성론·정치사회 부패론·타율적개혁불가피론」, 『역사와현실』 34, 한국역사학회, 1999; 최덕수, 「개항기 서양이 바라본 한국인·한국역사」, 『민족문화연구』 30,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7; 최숙경, 「개화기 서양인이 바라본 한국인, 한국역사」, 『민족문화연구』 제30집,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7; 허동현, 「근·현대 서양인의 한국관」, 『국제한국학연구』 5, 명지대학교국제한국학연구소, 2011.
 - 8) 홍이섭, 「歐美人의 韓國 女性觀- 19世紀 韓國 關係 歐文 文헌을 중심으로 한-」, 『아세아여성연구소』 Vol.1,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62.
 - 9) 이배용, 「개화기 서양인 저술에 나타난 한국여성에 대한 인식」, 『한국사상사학』 제19집, 한국사상사학회, 2002.
 - 10) 변혜정, 「歐美人의 눈에 비친 舊韓末 女性像과 男女差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11) 이영미, 「개화기 서양인 여행자들이 본 한국여성」(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2) 김희영, 「제국주의 여성 비습의 여행기에 나타난 조선 여성의 표상」, 『동학연구』 제24집, 한국동학학회, 2008.
 - 13) 홍이섭은 달레 외에 비숍(I. B. Bishop)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rs, 1907』, 그리피스(W. E. Griffis)의 『은자의 나라 한국Corea : The Hermit Nation, 1907』, 헐버트(H. B. Hulbert)의 『대한제국 멸망사The Passing of Korea, 1906』와 같은 기록들도 참고했다고 밝히지만 주로 인용한 자료는 달레의 기록이다.
 - 14) 홍이섭이 인용한 자료는 Claude Charles Daller,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1874.(CH. 달레 지음, 이능식·윤지선 역, 『조선교회사 서설』, 서울대성출판사, 1947)이다. 이 서설 부분은 1966년 정기수 번역, 『조선교회사 서론』이란 제목으로 발간하였고, 1977년 안응렬·최석우 역, 『한국천주교회사』로 책 전체를 소개할 때 이 서설 부분이 다시 번역되었다. 이 책은 1874년 프랑스에서 발표되었고 저자인 달레는 조선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프랑스 신부였다. 이 책은 서설과 본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서설부분에서는 당시 한국의 문화전반을 비롯하여 한국의 여성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본문은 한국천주교회사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주교에게 보낸 편지들을 달레가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홍이섭은 사회 신분 중 노비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남·녀를 비교하고 있다. 이는 달레의 기록 속 프랑스 신부들과 만남이 가능했던 한국인은 노비들이었기 때문이다. 홍이섭의 연구는 이 분야의 최초의 논문으로, 서양인들이 본 조선시대 여성 모습을 통해 미래의 한국 여성상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연구목적이 담겨있다. 이배용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 서양인의 저술에 대한 번역물들이 쏟아져 나오자 그런 자료들을 인용하여 서양인들이 본 한국여성에 대해 분류하고 정리함으로써 한국 여성에 대한 서양인들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변혜정은 경우 유교적 규율에 얽매인 양반여성들과는 다르게 가정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경제생활의 주체로 부각된 평민여성들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변혜정은 이 시기 타 신분의 여성에 비해 평민여성들의 모습은 한국 여성들이 근대 시민사회로 가는 기초적 발판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영미는 4명의 각기 다른 국가출신의 남성 여행자들의 기록물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미국과 영국, 스웨덴과 폴란드 국가 출신 남성들로,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영·미권은 대륙의 기타 지역인 스웨덴이나 폴란드에 비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편이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 여성을 바라보는 서양인의 관점은 출신 국가의 사회적 분위기나 그들 국가의 여성적 상황 등이 인식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이영미는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일상 생활의 모습, 외모 등에 대한 인식을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분류한 남성들의 시각을 다뤘다는 점이 장점이다.

김희영은 영국의 여성 여행가인 비숍(I. B. Bishop)의 오리엔탈리즘적 인식의 실상을 살피고 그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¹⁵⁾ 김희영은 비숍에 대해 조선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조선 여성의 사회적 지위, 속박, 남녀 차별적 관습 등과 같은 여건을 열등한 것으로 개념화하고 이와 비교하여 서구여성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방법과 같은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서양의 지배론적 입장에서 조선여성을 계몽시켜야 한다는 비숍의 태도에 대해서는 조선 여성의 모성애적 정체성으로 거부당하고 있는 모습을 부각시킴으로서

15) 김희영은 「오리엔탈리즘과 19세기 말 서양인의 조선 인식-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26, 경주사학회, 2007. 에서도 비숍의 동양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인 편향된 인식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그녀의 오리엔탈리즘적 인식을 비판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검토해보면 한국 여성의 모습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서양 남성들의 기록을 통해 살펴본 연구이고, 비숍이 남긴 저술을 제외하고는 동성인 서양 여성들의 기록을 통해 본 연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본 한국 여성들의 혼인을 비롯한 여성을 규제하는 사항들과 교육·종교 생활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되어진다.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고에서는 구한 말 여행이나 선교를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했던 서양 여성들이 남긴 저술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 저술 속에 나타난 한국 여성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양 여성들이 남긴 기록물은 많지 않지만 그들의 기록에 중점을 두는 이유는 당시 한국 여성들의 상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사회적 관습상 가족이나 남편을 제외한 다른 남성과는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여건을 고려할 때 서양 남성들 보다 여성들이 그들을 만나기가 쉬웠고 삶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동성의 입장에서 본 기록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기록보다는 더 세밀하고 생생한 관찰 기록이라 여겨진다.

한국에 관한 기록을 남긴 저술 중 5명의 서양 여성들이 남긴 기록물 속 한국 여성들에 대해 언급한 그들의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3명의 여행가는 영국출신의 중산층 여성들이고 2명의 선교사는 미국 출신의 중산층 여성들이다. 5명의 서양 여성들은 그들의 출신 국가와 자란 환경 그리고 방한 목적에 따라 한국 여성들을 인식하는 모습이 다르다.

연구 시기는 서양 여성이 최초로 입국한 1884년부터 1910년 한일조약까지이다. 연구시기를 1910년 까지 보는 이유는 1910년 이후 한국의 역사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서양 여성들의 한국 여성에 대한 인식은 따로 구분해서 살펴야한다고 생각

하기 때문이다.

연구목적에 의해 II장에서는 먼저 구한말 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이유와 자격으로 입국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서양에 문을 연 배경과 서양인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서양 여성들의 한국 체류 과정과 활동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남긴 5명의 서양 여성들과 관련 저술과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자들의 자란 환경을 비롯한 개인의 성향을 알 수 있고 한국에서의 일정 및 활동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기록물에 담긴 내용과 특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명의 저자와 기록물은 다음과 같다. 저자명, 기록물 영문 표기법은 각주를 참고하기 바란다. 순서는 서양 여성들이 한국에 관한 저술을 남긴 순이다.¹⁶⁾ ① 1897년 입국한 영국 출신 여행가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1897)¹⁷⁾ ② 1884년 의료선교사로 입국한 미국인 언더우드 부인의 『상투의 나라』(1904)¹⁸⁾ ③ 1897년 입국한 영국출신 화가이면서 여행가인 테일러의 『스코틀랜드 여성 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1904)¹⁹⁾ ④ 1904년 교육선교사인 미국 여성 와그너의 『한국의 아동 생활』(1911)²⁰⁾ ⑤ 1910년 영국출신의 화가로 여행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켈프의 『조선의 모습』(1911)²¹⁾이다.

III장에서는 위에 소개한 다섯 명 서양 여성들의 기록을 토대로 여성의 혼인과 관련해서는 조혼·축첩·과부의 再嫁에 대한 법과 관습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

16) 자료의 대부분이 외국어인 관계로 외국어를 전부 기입할 경우 자칫 혼란이 올 수 있어서, 본고에서는 서양 여성들의 이름은 성(姓)만 표기하고, 자료는 한글 표기로 통일하겠다. 다만 부부인 경우 여성은 성 뒤에 부인으로 통일하겠다. 단, 맨 처음 언급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를 하겠다.

17) Isabella Bird Bishop, "Korea and Her Neighbors", Fleming H. Revell Co., New York, 1897. (이사벨라 B. 비숍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집문당, 1999).

18) Lillias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American Tract Society, Boston 1904. (릴리아스 .H. 언더우드 지음, 신복룡 역주, 『상투의 나라』, 집문당, 2010)

19) Constance J. D. Tayler "Korea at Home :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 Cassell and Company, Limited, London, 1904. (콘스탄스 J. D.테일러 지음, 황혜조 역, 『스코틀랜드 여성 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 살림, 2013).

20) Ellasue Wagner, "Children of Korea", Oliphants Ltd., London, 1911. (E. 와그너 지음, 신복룡 역주, 『한국의 아동 생활』, 집문당, 1999).

21) E. G. Kemp, F. R. S. G. S "The Face of Korea", Duffield & Company, New York, 1911. (E. G. 켈프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의 모습』, 집문당, 1999).

고, 여성들의 가사 노동에 대한 서양여성들의 인식을 보고자 한다. 이어 주거 공간에 따른 제약과 장옷과 같은 복식의 규제로 인한 여성의 폐쇄성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이 선교의 방편으로 삼은 교육과 종교 활동이 여성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서양 여성의 한국 방문과 저술

1. 서양인의 한국 체류 배경과 활동

개항 이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제물포, 부산항, 원산항이 개항되고 1897년에는 목포와 진남포까지도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들어 올 수 있는 개항장이 된다. 한국이 서양과 조약을 맺은 주된 목적은 그들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음으로 세계의 흐름과 동반하려는 의지와 외국과의 무역을 위한 통상 관계를 증진하고 그들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이다. 서양인들의 국내 체류는 이런 목적에 따라 각국의 공사나 영사를 비롯한 외교관들, 한국 정부가 고용한 각 분야의 고문관들, 선교사, 그리고 사업가 등의 체류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목적과는 별개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혹은 몇 년을 체류하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자, 학자, 과학자, 여행가 등이 있었다.

각국의 외교관 및 정부 관련한 고문들이 떠나면 이국 땅 한국을 선택할 때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경험을 쌓기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출세하려는 야망과 함께 돈을 벌고자 하였다.²²⁾ 한국에서 그들은 고액의 연봉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²³⁾ 실재 그들은 정·종 2품이나 정 3품의 직위를 받았고, 정부 고용 고문관인 경우 600원~12,000원 상당의 연봉을 받았다. 국내의 정 1품 총리대신의 월급이 300원, 대신의 월급은 200원과 비교하다면 그들의 봉급이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²⁴⁾ 한편 한국 정부는 서양 종교의 전파를 원하기 않았기

22) 한국에 온 서양인들은 대체로 정치·사회적으로 몰락한 가문의 후예이거나 상속에서 배제된 차남들이 많았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회로 삼아 본국에 돌아간 이후 출세를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고종의 외교 고문 데니(O. N. Denny)는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상원의원이 되고, 탁지부 고문 겸 총세무사 맥리비 브라운(McLeavy Brown)은 영국으로 돌아간 후 작위를 받았으며, 궁내부 고문 샌즈(W. F. Sands)는 외교관으로 활동했다.(김현숙, 『개화기 정부 고용 서양인들의 고용실태와 일상생활』,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34,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10쪽)

23) 이들은 추가로 사택을 제공받거나 월 100원 상당의 사택비를 받았다. 반면 행정관이나 기술관들은 이들보다 봉급이 적었다. (김현숙, 『개화기 정부 고용 서양인들의 고용실태와 일상생활』,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34,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24) 김현숙, 위의 글, 14쪽.

때문에 선교사들은 선교의 목적을 숨기고 교육이나 의료행위를 가장해 활동한다. 서양인들의 입국과 체류의 과정에는 위와 같은 배경이 있다. 그들이 한국에서의 활동상황을 방문 목적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외교관

외교관들은 한국이 서양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이 한국에서 습득한 정보는 본국에 보내졌고, 그러한 정보는 한국과의 외교관계에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과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은 서울과 개항장에 공사관과 영사관을 설치하고 업무를 보기 시작하게 된다. 1883년 5월 부인과 함께 주한미국공사로 부임한 푸트(Lucius H. Foote)²⁵⁾는 서양과의 외교관계 이후 최초로 입국한 서양인이라고 할 수 있다.²⁶⁾ 푸트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독일인이면서 청국의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뮐렌도르프(Paul George von Möllendorf)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후 민치호의 집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후 그곳을 주한미국공사관으로 사용하게 된다. 당시 주한미국공사관에는 푸트부부와 3명의 미국인 및 일본인 통역 1인과 조선인 통역자 윤치호가 상주하였다.

영국은 한국에 공사보다 한 단계 아래인 영사를 외교관으로 보냈다. 조·영수호 조약을 체결하는데 최대 공로자이며 당시 주청영국대사인 파크스(H. S. Parkers)는 주한공사를 겸직하면서 본인은 북경에만 상주하고, 서울에는 총영사인 애스톤(W. G. Aston)을 파견하고 제물포에는 부영사 찰스(W. R. Carles)를 두어 서울 주재 영국 영사를 본인이 머물고 있는 북경에 종속시켰다. 외교관으로 청이나 일본에 공사를 파견한 영국이 한국 파견 외교관의 수준을 영사급으로 낮춘 것은 한국을 청이나 일본보다 격하시킨 행동이라 볼 수 있다.²⁷⁾ 당시 한국은 임오군란

25) 고종은 미국 정부가 특명전권공사를 파견해줌으로써 청국 및 일본과 동격으로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해준 사실에 “기뻐서 춤을 추었음” 정도로 환영했다.(한철호, 『개화기 관료지식인의 미국 인식-주미 공사 관원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한국 역사 연구회, 2005, 36쪽.)

26) 독일인 뮐렌도르프(P. von Möllendorf)는 청나라 이홍장의 추천으로 한국의 외교고문이면서 총세무사로 임명되어 1882년 한국에 입국했다. 푸트보다 빠른 시기에 한국에 입국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서양과의 정식 조약 체결 이후 조약 상대국에서 합법적으로 입국한 서양인을 대상 기준으로 봤다. 이에 서양인 가운데 한국에 처음 입국한 사람은 최초의 체결 국가인 미국에서 온 미국 공사 푸트라고 볼 수 있다.

27) 오정우, 『한말 조선의 대영수교 고찰』, 『전북사학』 Vol.40, 전북사학회, 2012, 170쪽.

이후 본국으로 철수하지 않은 청·일 양군이 여전히 서울에 있었고, 청의 외교고문인 뮐렌도르프는 한국의 외교 및 재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²⁸⁾ 영국은 한국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이 영사관을 청에 둔 이유는 이와 같은 주변 국가의 영향력과는 관련이 있었다.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1886년 수교하기 전까지는 순탄하지 않았다.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인 한국과 프랑스 관계가 시작되었다. 주한 프랑스 초대 공사 겸 총영사는 콜랭 드 플랑쉬(Collin de Plancy)이다. 그는 1888년 6월부터 1891년까지 프랑스를 대표하는 외교관 역할을 한다. 플랑쉬는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고종의 외교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면서 고종의 신임을 얻는다.²⁹⁾ 이후 1903년까지 한국에 머물렀다.

2) 한국 정부 고용인

한국 정부에 고용된 서양인들은 각 행정 부처에 소속되어 의료·교육·외교·근대기술의 도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³⁰⁾ 그들은 서양인 상주자들 중 외교관 다음으로 큰 집단이었다. 정부는 개화기 이후 근대식 기관을 설립하고 그곳을 운영할 인력의 필요성에 따라 서양인들을 고용하여 기관을 운영하고 그들로부터 경영기술을 배우고자 하였다. 특히 해관·교육·정부기관·과학기술·군사·선교 분야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 1882년 11월부터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전까지 330여명의 서양인들이 정부 및 산하기관에 고용되어 업무에 종사하였다.³¹⁾ 그 중에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조선 정부의 친미적인 정책과 청국이 미국을 이용하여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려는데 따른 것이다.³²⁾ 고용기간은 대략 1년에서 3년 정도였는데 보통은 재계약을 맺었다.

정부가 고용한 서양인들은 한국의 정세에 따라 고용인의 국가와 인원에 차이

28) 오정우, 「韓末 朝鮮의 對英修交 考察」, 『전북사학』 Vol.40, 전북사학회, 2012, 170쪽.

29) 플랑쉬 공사는 독신으로 한국에 왔고, 리진이라는 궁중 무희이자 관기인 여성과 결혼, 함께 프랑스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리진에 대한 기록은 프랑댕(Hippolyte Frandin)의 『En Corée』,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신경숙의 소설 『리진』, 김탁환의 『파리의 조선 궁녀 리심』이 있다.

30) 김현숙, 「개화기 정부 고용 서양인들의 고용실태와 일상생활」, 『한국 근현대사 연구』 34, 한국 근현대사학회, 2005, 9쪽.

31) 김현숙, 앞의 글, 9쪽.

32) 김현숙, 앞의 글, 12쪽.

가 났다. 1882년 서양과의 조약 체결 이전까지는 청나라 사람들이 많았다. 청나라 사람들은 1883년 이후 대부분 귀국하고 그 자리를 서양인들이 대신하게 되었다. 미국인 33명, 영국인 25명, 독일인 20명이 고용되었다.³³⁾ 1894년 갑오개혁 이후 1895년 사이에는 일본인 고문관과 보좌관 40여명이 고용된 반면 서양인은 4명만 고용된다. 아관파천기인 1896년~1897년 사이에는 러시아인이 가장 많게 36명이 고용된다. 러시아에서 한국에 파견된 사람들은 군인들의 훈련을 담당할 교관들이 많았다. 반면 다른 서양 국가는 미국인 10명을 포함하여 16명이 고용된다. 하지만 러시아인은 그 후 숫자가 줄어든다. 대한제국기인 1897년 이후 고종이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서양인을 채용함에 따라 그들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게 된다. 1898년~1902년 사이 매년 평균 20여명의 외국인들이 정부 고용인으로 한국에 들어온다.³⁴⁾ 이와 같이 한국 정부의 서양 고용인들은 한국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다.

3) 선교사

한국은 미국 선교사들이 주도했던 선교지였다. 남·북 장로교와 남·북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 거의 독점적으로 주도 되었다. 이 두 교단은 중산층을 기반으로 선교사들은 대학이상의 교육과 복음적 신앙뿐만 아니라 실용적, 자본주의적 가치관은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³⁵⁾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육체적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체력, 현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해 나이 많은 사람을 배제시켰다. 대부분의 신참 선교사들은 25~35세의 중산층 젊은이들이었다.³⁶⁾

그들은 의료기술 등 자신들의 문화가 갖는 장점과 선교를 접합하여 종교를 전파했다. 1884년~1910년 내한한 미국 선교사들의 숫자는 약 407명 정도이다. 그들은 1890년 서울을 방문한 중국 선교사 네비우스(John L. Nevius)의 영향을 받아 선교 활동의 중심을 일반 평민과 여성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한다.

33) 김현숙, 앞의 글, 12쪽.

34) 김현숙, 「개화기 정부 고용 서양인들의 고용실태와 일상생활」, 『한국 근현대사 연구』 34, 한국 근현대사학회, 2005, 13쪽.

35)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1884~1910)-선교사들의 중산층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27쪽.

36) 류대영, 앞의 글, 55쪽.

개항 후 한국에 입국한 최초의 선교사는 알렌(H. N. Allen)이다. 청에서의 선교활동에 진전이 없던 알렌은 선교 대상국을 한국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1884년 제물포를 통해 입국한다. 그해 12월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 당시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민영익을 살려낸 공로를 인정받아 고종의 시의(侍醫)로 일하게 된다.³⁷⁾ 이 일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서양의 의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선교사들은 의료행위를 내세워 입국하게 된다. 알렌의 영향으로 1885년 미국의 선교사들이 의료 행위를 표방하며 한국에 들어온다. 선교사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스크랜튼(W. B. Scranton) 그리고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그들이다.

언더우드는³⁸⁾ 입국 초기 알렌을 도와 병원 일을 하면서, 고아원과 학교를 설립했다. 그는 의학 대학 준비를 위한 학생들을 가르쳤고, 서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북쪽 경계지역도 마다않고 국내를 여행하면서 선교 사업을 병행하였다.³⁹⁾

아펜젤러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본인의 집을 교실로 만들고 두 명의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당시 주한미국공사인 폴크(G. C. Foulk)는 고종에게 아펜젤러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학교를 설립해 여러 학생들을 교육하고 싶어한다는 의지를 전한다. 이에 고종은 배재학당(培材學堂)이라는 학교이름을 직접 지어 준다. 배재학당은 최초의 근대식 중등 사학교육기관으로, 교과목으로는 한문을 비롯한 서양 학문인 영어, 천문, 지리, 수학, 생리, 성경 등과 서양식 운동인 야구, 축구, 정구, 농구 등을 수업 중에 가르치고 그 외 특별활동으로 연설회, 토론회 등도 교육했다. 그는 정동교회를 설립하는 등 교육과 선교를 위한 활동에 주력했다.

스크랜튼은 그의 부인과 어머니 매리 스크랜튼(Mary F. Scranton)과 함께 한국에 들어온다. 처음에는 알렌을 도와 제중원에서 의료사업을 돕지만, 6개월 뒤

37) 민영익은 알렌의 치료로 1885년 3월 완전히 회복된다. 알렌은 조선 정부로부터 1,000냥의 사례금을 받았다. 시의로 임명된 알렌은 외국인들 중 고종과 가장 가깝게 되고 한국 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강준만, 『한국 근대사 산책-개신교 입국에서 을미사변까지』 2권, 인물과 사상사, 2007, 10쪽.)

38) 한국이름은 원두우(元杜尤)이다. 1884년 한국에 입국한다. 1886년 한국 최초의 고아원을 설립했는데 이 학교가 경신학교의 전신이다. 그는 성서번역 및 ‘한국어문법’을 편찬·간행했다.

39) Lillias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American Tract Society, Boston 1904.(릴리아스 .H. 언더우드 지음, 신복룡 역주, 『상투의 나라』, 집문당, 2010, 30쪽.)

자기 집에 진료소를 열어 환자를 보기 시작한다. 1886년 정동에 시설을 갖추고 시병원(施病院)을 개원한다. 1887년 부인전문병원인 보구여관을 동대문에 설치하고, 1894년 남대문 근처 빈민촌지역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상동으로 병원을 옮긴다. 그는 부녀자와 어린이 치료를 전문으로 했고, 전염병에 걸려 버려진 환자를 치료하고 고아들을 돌봤다. 또한 한국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된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기도 했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중에는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영국선교회, 천주교 등 여러 교파들도 포교활동을 했다. 1886년 한·불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한국에서의 천주교 포교가 허락되면서 그동안 비밀리에 포교활동을 하던 프랑스 신부들도 종교 활동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1890년에는 영국성공회의 코페(C. J. Corfe)주교를 비롯한 일행들 역시 포교활동과 더불어 한국 상주가 가능하게 되었다.⁴⁰⁾

4) 사업가

외교관이나 정부 고용인, 선교사 외에 외국 기업 소속 사업가들이 한국에 상주하였다. 그들은 주로 서양의 물품들을 수입하거나 한국의 물품을 수출하고, 선박회사, 광산경영, 철도 부설공사와 관련된 이들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세한양행을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무역 대행업체로써 1884년 독일의 마이어(Meyer)상사의 제물포 지점으로 설립된 무역회사이다. 그들은 영국산 면제품, 바늘, 염료, 금계랍, 무기류 등을 수입하고, 한국산 쇠가죽, 쌀, 콩과 같은 곡류 및 홍삼 등을 수출하였다. 또한 개항장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조계지(租界地)를 사들이고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1889년 독일에서 쾌속선을 구입하여 인천-마포 간 항로를 운행하여 큰 이익을 보았다. 영국인 윌리엄 자딘(Scots William Jardin)과 제임스 매티슨(James Matheson)이 설립한 이화양행은 1880년대 초 제물포에 교역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 기업은 사금장(砂金場)의 채굴권을 획득하여 수익을 올리고,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는 화물선을 개통하여 수

40) 오인영, 「개화기 주한 서양인들의 생활상」, 『동양학』 제35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4, 266 쪽.

익을 올렸다. 한국에 최초의 전기와 전차를 소개한 미국인 콜브란(H. Collbran)은 고종의 신임을 얻어 상수도 시설 특허를 받아 운영하기도 했다.

이상으로 서양인의 한국 체류와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882년 이후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던 서양인의 수는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줄어들게 되었다. 한국의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이후 서양의 외교관들은 자국민 보호라는 영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본국으로 철수한다.⁴¹⁾

2. 서양 여성의 한국 체류와 활동

한국에 체류했던 서양 여성들은 남성들과는 달리 직업 군이 다양하지 않다. 여성 선교사와 남성 선교사의 부인이 가장 많고, 여행가, 그리고 몇 명의 여성 사업가인 경우가 전부이다. 그들은 본국에서는 성차별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의사로, 교육자로, 선교사로, 작가로, 예술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⁴²⁾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류는 선교와 관련된 여성들이었다. 외교관이거나 정부 고용직의 남성들은 혼자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선교사들인 경우 부인이나 가족과 함께 입국했다. 한국에 입국한 서양인 사회에서 선교사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산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⁴³⁾

초대 미국공사로 임명된 푸트(Lucius H. Foote)의 부인을 제외한다면 공사관 직원들, 상인들, 정부에 고용된 다수의 사람들 중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남성 선교사들인 경우는 달랐다. 선교본부는 가능하면 독신으로 선교지로 떠날 것을 권했지만, 기혼자인 선교사들은 부인을 비롯한 가족과 함께 입국하기를 원했다. 이는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어린자녀들은 선교 사업을 위해선 불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하

41) 오인영, 「개화기 주한 서양인들의 생활상」, 『동양학』 제35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4, 265쪽.

42) 김희영, 「제국주의 여성 비숍의 여행기에 나타난 조선 여성의 표상」, 『동학연구』 제24집, 한국동학학회, 2008, 148쪽.

43) 1892년 주한 미국인 가운데 어린이가 19명이었는데 그 중 18명이 선교사의 자녀였다. (류대영, 앞의 글, 61쪽.)

고 행복하게”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선교활동을 했다.⁴⁴⁾

여성 선교사 혹은 선교사 부인들은 비록 선교라는 목적을 갖고 입국하였지만 인천항에 도착하면서부터 겪게 된 황폐된 주변의 자연과 거리의 더러움, 한국인들의 무례함 등과 같은 실상을 보고 당황함과 함께 앞으로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힘들어했다. 그들 대부분은 한국적 환경에 맞춰 살려는 노력보다는 자국에서 익숙한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했다. 물론 그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과 그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했다.⁴⁵⁾

선교사들의 거주지는 한국인들의 거주지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그들이 선교를 위해 자리 잡은 곳은 도시나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근방에서 가장 좋은 곳에 있었다. 화려함을 추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살던 것보다 더 넓은 집에서 살았다. 그들은 한국의 상류 지배층적인 삶을 살았다. 선교사들은 한국에서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하인들을 부릴 수 있는 여건이어서 유모, 요리사, 마부, 문지기, 가마꾼 외에도 남녀 하인을 거느렸으며, 몇몇의 선교사들은 마치 양반들처럼 하인들을 심하게 다루는 경우도 있었다.⁴⁶⁾

선교사 부인들은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에 테니스를 치거나 피크닉을 즐겼으며, 산과 강을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처럼 부활절, 미국독립기념일, 조지워싱턴 탄생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에는 그들끼리 서로 모여 잔치를 벌이고 기념하곤 했다.⁴⁷⁾

선교사들이 지나치게 편하고 사치스럽게 산다는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18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의 선교 활동이 성공적으로 되면서 개종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졌다.⁴⁸⁾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선교의 방편으로 삼은 의료와 교육은 한국여성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여성 선교사들은 남성선교사들의 그늘에 가려 그 영향력이 축소되거나 간과되고 있지만 그들은 한국 여성들의 의식구조와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⁴⁹⁾

44)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1884~1910)-선교사들의 중산층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61쪽.

45) 류대영, 앞의 글, 57쪽.

46) 류대영, 앞의 글, 64쪽.

47) 류대영, 앞의 글, 64쪽.

48) 류대영, 앞의 글, 65쪽.

한말 서양 여성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습은 주로 의료 사업이나 교육 사업 그리고 선교가 주를 이루었고 여행가들은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을 구경하고, 사업가는 호텔을 운영하는 모습이 보인다.

1) 여성 의료 선교사

고종에게 최초의 서양식 병원 건립을 제안한 알렌의 요구로 국립광혜원이 설립된다. 광혜원은 이후 제중원이란 이름으로 바꾼다. 당시 제중원에는 전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양반, 거지, 나병환자 등 계층을 초월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 제중원을 찾았다. 그들 가운데는 많은 수의 여성 환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남녀칠세부동석과 같은 사회적 관습 상 여성들을 진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알렌은 미국 선교본부에 여성만을 위한 병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여의사의 파견을 요구한다. 이러한 알렌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한국에 파견된 최초의 의료 관련 여성 선교사는 엘러즈(Annie J. Ellers)였다.

엘러즈는 1886년 육영공원 초빙교사인 헐버트(H. B. Hulbert)부부, 길모어(G. W. Gilmore)부부, 그리고 벙커(Dalziel A. Bunker)와 함께 인천항으로 들어온다. 그녀의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였다. 어려서부터 종교적인 집안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는데 관심이 있었다. 그녀는 선교지에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보스턴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의학 공부를 마치고 난 이후 한국의 선교사로 지원한다. 엘러즈의 입국으로 제중원에는 일반 진료뿐만 아니라 여성의 진료가 가능한 부녀과가 신설된다. 부녀과를 찾아 내원한 여성들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여성에게만 생기는 질병인 백대하, 무월경, 유산, 월경불순 등이 놀랄 정도로 많았다.⁵⁰⁾ 양반계층의 부인들은 직접 병원을 찾아오지는 않고 남편이나 친지를 대신 보내 아픈데 필요한 약을 요청하기도 했다.⁵¹⁾ 명성황후 역시 엘러즈가

49) 이정순, 앞의 글, 47쪽.

50) 알렌이 미국 북장로회 선교본부에 보낸 “제중원 일차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질병을 18개의 군(群)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 마지막 분류항인 18군에는 여성 질환 관련 병들이 소개되어져있다. 백대하가 27예로 가장 많았고, 무월경이 10예, 유산이 9예, 월경불순이 8예 등 총 67경우의 예들이 기록되어 있다. (박형우, 『제중원』, 몸과 마음, 2002, 113쪽.)

51) 박형우, 앞의 글, 113쪽.

은 이후 그녀에게 직접 진찰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고종은 그녀를 시의(侍醫)로 임명하고 황후뿐만 아니라 궁궐 안 여성들의 병을 진료하게 하였다.⁵²⁾ 엘러즈와 언더우드 부인⁵³⁾에 이어 제중원의 부녀과에서 여성들의 병을 진료하면서 제중원의 재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맡았던 화이팅(Georgiana Whiting)은 1895년 간호사인 제콥슨(Anna P. Jacobson)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제콥슨은 여성 선교사들 가운데 간호사로 입국한 경우이다. 제콥슨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유행한 콜레라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언더우드 부인은 제콥슨에 대해 ‘매우 정열적이고 빠른 속도로 한국어를 익혀 한국 사람들의 호감을 받았다’고 말한 것처럼 그녀의 의료 행위는 타의 모범을 살만 했다.⁵⁴⁾

제중원의 부녀과와 더불어 여성만을 위한 전용병원도 설립되었다. 보구여관은 선교사 스크랜튼 박사의 어머니인 매리 스크랜튼(Mary F. Scranton)이 마련한 여성 환자를 위한 부인 전용 병원이었다. 보구여관은 한옥을 개조하여 병원을 꾸렸기 때문에 입원실은 온돌방이었다. 그곳의 최초의 의사는 1887년 입국한 여의사 하워드(M. Howard)였다. 하지만 하워드는 1889년 건강악화로 병원 일을 그만두고 이어 새로 부임한 여의사는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로⁵⁵⁾ 캐나다 출신 의사인 남편과 함께 의료 선교사로 입국했다. 홀은 첫날 4명의 환자를 시작으로 10달 동안 2천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다. 이는 한 달에 약 2백 명 정도의 여성 환자를 진료했다는 것인데, 교통편이나 여성들이 집밖으로 다니는 게 자유롭지 않던 시대 상황을 비춰봤을 때 당시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병을 앓고는 있었지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52) 이후 엘러즈는 여성들의 병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887년 정2품에 해당하는 정경부인의 직급을 하사받았다.

53) 언더우드 부인의 한국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본고 2장 3절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기에 여기서는 소략한다.

54) 언더우드 부인, 신복룡 역주, 『상투의 나라』, 집문당, 2010, 236쪽. 그 밖에 한국의 초창기 간호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쉴즈(Esther L. shields)가 있다. 그녀는 1891년 필라델피아 간호사 양성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훈련과정을 마친 후 1897년 입국한다. 그녀의 역할은 간호업무 외에도 여성 환자들에 대한 전도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이었다. 또한 휠드(Eva Field), 휘시(Mary A. Fish) 도 제중원에서 여성 환자들을 진료했다.

55) 홀 부인은 남편인 윌리엄 제임스 홀을 따라 평양에서 청일전쟁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평양에 기흥병원과 광혜원을 세웠고, 한국 최초의 집자법을 개발하여 맹인교육을 실시했다. 1917년 부터는 동대문병원에서 일하면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설립했다.

알 수 있다.

서울에 편중되어 있던 여성을 위한 진료기관들은 1890년대 이후 지방에도 세워지게 된다. 잉골드(Mattie B. Ingold)는 1898년 전주에서 의료 활동을 시작한 서양 여성 의료 선교사이다. 전주 성문 밖에 조그만 집을 한 채 구입하고 주로 어린이와 여자들을 위한 진료를 시작하는데, 이는 전주 예수병원 초창기의 모습이다. 한국의 여성들을 위해 서양여성이 세운 전주 예수병원은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 세운 최초의 병원이며, 또한 제중원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병원이다. 지방 여성들을 위한 병원 설립 소식은 전국에 퍼져 첫 5개월 동안 4백 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1903년까지 1,5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서울 남쪽 지방의 여성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었을 것이다.

서울의 남쪽에 여성 전용 병원인 전주 예수병원이 설립되었다면 북쪽에는 1901년 입국한 맥밀란 (Dr. Kate McMillan)이 서울을 떠나 원산과 함흥을 오가며 1903년 함흥에 방 두 칸이 있는 초가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여성 환자들을 진료하기 시작했다. 맥밀란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부인과 어린이들이었다. 이는 당시 여성 의료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계층이었다. 맥밀란은 자신의 집에서 의료 활동을 하다가 10년이 지난 1913년에는 함흥에 한국과 양식이 절충된 40병상 규모의 제혜병원을 완공하고 의료 활동을 더 넓게 펼쳤다.⁵⁶⁾

서양 여성 의료 선교사들은 독신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언더우드 부인처럼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남성 선교사들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결혼 이후에는 남편을 따라 종교의 계파를 바꾸기도 하고, 의료선교에서 벗어나 성서 번역 등 입국 당시 선교 목표와는 다른 방향일지라도 남편과 함께 하는 일을 선택했다. 미국 선교사들의 숫자와 영향력은 다른 나라들보다 컸다. 특히 여성 선교사들의 숫자는 남성 선교사들보다 많았다. 60% 이상이 여성 선교사였으며, 이들은 의료와 교육 사업을 통해 한국여성들의 의식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⁵⁷⁾ 미국 중산층이 추구하는 여성에

56) 맥밀란은 병원운영 이외에도 순회전도, 여성 성경공부, 야간 성인 성경공부, 여학교 주간 수업 등 복음전도 활동까지 병행하였다.

57) 이정순, 「한국에 온 여성선교사들(1886년~1955년)의 삶과 사역에 관한 고찰- 미북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미남장로교회와 캐나다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제18집, 한국복음

대한 가치관은 가정을 지키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아름답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이다.⁵⁸⁾ 즉 남성들은 여성에게 종교성과 도덕성을 부각시켜주는 댓가로 여성들이 가정이나 교회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만을 바랐다. 미국 여성들은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사회적 진출 기회가 적었고, 해외선교를 통해 그들의 욕구를 해소하려고 했다.⁵⁹⁾

2) 여성 교육 선교사

여성 선교사들의 교육 사업은 당시 사회적 교육이 전무였던 한국 여성들에게는 서양 세력이 가져온 가장 큰 혜택이었다. 여성 선교사들은 자국에서는 중산층 출신이며 최소한 고등학교 수준 혹은 그에 준하는 학력을 마친 여성들이었다. 연령층은 대부분 20대~30대였다. 그들은 한국의 여성들이 남성들과는 달리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개선하고자 여성만을 위한 여학교를 세움으로써 한국여성들에게 남성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물론 이들이 세운 학교는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것이었지만, 새로운 교과 내용과 남녀가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여성을 사회로 끌어내는 동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여성 선교사들은 아동, 부녀자들과 접촉하면서 가정과탄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부양하거나 교육시키고 이들의 후견인이 되어주기도 하였다.⁶⁰⁾

매리 스크랜튼(Mary F. Scranton)⁶¹⁾은 감리교 목사인 아버지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선교에 관심이 많았다. 40세 때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서 아들을 키우다가 53세에 아들인 스크랜튼 박사와 며느리와 함께 한국의 선교사로 입국한다.

주의 선교신학회, 2012, 47~48쪽.

58)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1884~1910)-선교사들의 중산층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41쪽.

59) 류대영, 41~42쪽.

60) 이정순, 「한국에 온 서양 여성 선교사들(1886~1955)의 삶과 사역에 관한 고찰-미북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미남장로교회와 캐나다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제18집,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2012, 53쪽.

61) 개화기 초창기에 서양 여성은 남편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 한국의 상황을 알면서도 여성 해외선교회에서 스크랜튼의 어머니인 스크랜튼 여사(Mary F. Scranton)를 보낸 이유는 한국 여성들의 철저한 은둔 생활로부터 여성 활동의 문을 열기 위해서였다.

1885년 6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자신이 거주할 집과 땅을 매입하여 새 건물을 짓고 1886년 11월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화학당을 마련함으로써,⁶²⁾ 한국의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학습할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학생 모집은 어려웠다. 이화학당의 첫 학생은 정부 관리의 첩이었다. 그 관리는 자기 첩이 영어를 배워 후일 왕비의 통역사가 되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3개월 정도를 배우다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그 후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고아, 거지,⁶³⁾첩의 딸 혹은 천민의 딸들이었다.⁶⁴⁾ 남학생들과는 달리 여학생 모집은 어려웠다. 당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딸의 교육을 위해 외국인에게 딸을 맡기는 것은 어머니답지 못한 행동이라 여겨 학교 보내는 것을 꺼렸다. 그렇지만 이화학당의 학생 수는 이후 점점 늘었고,⁶⁵⁾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상류계급 출신의 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⁶⁶⁾ 초반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리 스크랜튼은 여성의 교육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데 이는 교육을 통해 여성을 가난과 무지에서 구출하고 교육 받은 그들을 통해 또 다른 한국의 여성을 돕는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엘러즈는 의료 사업에 매진하던 중 언더우드가 데려온 몇 명의 고아 중 5살 난 여자 고아를 집으로 데려와 글을 가르치는데 이를 계기로 정동여학당을 열어 여자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다. 캠벨(Josephine Eaton Peel Cambell)은 청나라 상해와 소주에서 선교활동을 하다 1897년 44세에 독신의 몸으로 한국에 들어온다. 한국에 온 그녀는 선교와 더불어 환자들의 간호와 진료를 담당했다. 1년 뒤 1898년 캐롤라이나지역 목사들의 헌금을 기반으로 캐롤라이나 학당을 설립하였다. 학생은 6명으로 첫 학생은 선교사 사택 수위 딸과 캠벨이 순회 전도하면서 데려온 가난한 집 여자아이들이었다. 그들을 가르친 교사는 캠벨의 양녀인 여도

62) 여성 교육선교사들의 모습을 격려하기 위해 명성황후는 황실의 상징인 배꽃의 이름을 따서 한국 여성의 순결과 고결함을 상징하는 이화학당(梨花學堂)이라는 학교이름을 지어주었다.

63) 1886년 콜레라가 퍼졌다. 서울 안에서만도 수백 명이 죽었다. 스크랜튼 박사는 성문 밖에서 한 아이 어머니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다가 치료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을 스크랜튼 여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보냈다. 이화학당 초창기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를 그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의심과 경계의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불행하지도 않고 천대받지도 않는 것을 보았다. 이 후 다른 부모님들도 그들을 믿고 자신의 아이들을 보내었다.

64) 백낙준, 『한국 개신교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27쪽.

65) 이화 학당의 여학생 숫자는 1887년 7명, 1888년 18명, 1893년 30명, 1897년 46명으로 점점 늘어났다.

66) 1890년대 박영효의 딸이 학당에 와서 스크랜튼 여사와 함께 기거를 하며 지내기도 하였다.

라를 비롯한 2명이었고, 영어밖에 할 수 없었던 캠벨은 수업시간에 손짓, 발짓, 무언극으로 마치 춤을 추듯 수업을 하였다. 그렇지만 그녀는 윤치호로부터 한글을 배워 1개월 만에 유창한 한글을 구사하게 되었으며 일반 조선인들과 통역 없이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캐롤라이나학당은 1903년 배화학당이 되면서 교육내용은 산술, 독본, 생리학, 지리, 역사 등으로 확대되었다. 윤치호와 이상재가 기탁금을 기부하고, 경비원과 통역사, 식모, 차량 등을 지원해 주었다. 1900년대 선교사들이 설립한 여학교는 서울, 평양 및 기타 지역에서 9개가 있었다.⁶⁷⁾

미국 선교사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장로교 출신의 여성 선교사인 맨지스(B. Menzies)의 활약도 관심을 끈다. 그녀는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선호하는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파견되었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여성의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신념으로 고아 3명을 데리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마오리 고아원과 교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신여학교를 설립하였다. 일신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일제강점기인 1919년 부산 3·1운동이라 할 수 있는 3·11의거를 주도하여 부산 항일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3) 여성 여행가

여성 여행가들의 숫자는 선교사에 비하면 극소수이다. 영국 출신이 대부분이며 대표적인 여성으로 비숍(Isabella Bird Bishop), 테일러(Constance Jane Dorothy Tayler), 켐프(Emily Georgiana Kemp)가 있다. 그들은 독신의 영국 여성들이었으며 테일러와 켐프는 화가였다. 이들은 여행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한국에 대한 인상을 남긴 글을 발표한다. 책 속에는 한국의 자연과 건축물 그리고 한국인들을 찍은 사진과 화폭에 담은 그림들도 실려 있다. 여행가로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3개월 내외 국내에 체류하였다. 그렇지만 여성들인 경우 꽤 오랫동안 머물렀던 경우도 있다. 테일러인 경우 1894년 입국 후 1901년 까지 7년 동안 체류했으며 비숍인 경우 1894년부터 1897년 까지 동아시아권을 여행하면서 한국을 네 번 방문했다. 이들 세 명의 여성 여행가들은 2장 3절에서 그들의 남긴 기록물

67) 박보경, 『기독교 선교가 초기 한국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 『선교와 신학』 제13집, 세계선교연구원, 2011.

과 함께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4) 기타

한국을 방문한 서양 여성들은 여성 선교사 그룹과 여행가 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 그룹은 아니지만 서양 음식을 비롯하며 서구식 파티 문화를 궁궐에 소개하고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을 운영한 독일인 여성 손탁(Antoniette Sontag)을 빼놓을 수 없다. 1885년 매제(妹弟)인 러시아 공사 베베르(Karl Ivanvich Weber)를 따라 통역사의 자격으로 한국에 파견된 손탁은 베베르 공사의 추천으로 경복궁의 양식 조리사로 임명되어 일한다. 궁궐을 출입하면서 명성황후와 가까워졌고 명성황후에게 서양의 역사와 제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에 대해서 말하고, 서양 화장술을 비롯하여 서양 요리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녀는 영어, 독일어, 불어 및 한국어가 가능했고, 한국 정부가 서양과의 조약으로 외교사절을 접대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서양인을 위한 음식 마련 등 황실 주최의 연회 등을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902년 고종은 손탁에게 덕수궁 옆 황실 소유의 가옥 및 토지를 하사한다. 그곳에 객실 25개를 갖춘 2층짜리 손탁 호텔이 들어선다. 서울에 체류하던 서양인들이 주로 애용했으며 귀빈이 입국했을 때 이곳에 머물렀다. 손탁이 잠시 휴가를 떠난 1년 동안 그녀의 뒤를 이어 황실의 전례를 맡았던 엠마 크뢰벨(Emma Kroebel)이 있다. 그녀는 손탁의 업무와 궁궐의 이야기를 담은 『나는 어떻게 조선에 오게 되었나』라는 저서를 남기기도 했다.⁶⁸⁾

3. 서양 여성의 한국 저술과 내용

한국을 방문했던 서양 여성들 중에는 방문 목적이나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한국에 관한 저술을 남긴 이들이 있다. 이러한 글들은 방문 목적에 따라 그 성격이

68) 엠마 크뢰벨(Emma Kroebel), 김영자 역, 『나는 어떻게 조선에 오게 되었나』, 민속원, 2015.

조금씩 다르다. 동성인 입장에서 한국 여성들의 어떤 모습을 기록에 담고 싶었을 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 본인들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고 생소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싶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록은 자국민들이 읽을 내용이고 새롭고 특이한 모습은 그들의 관심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가들은 호기심과 더불어 자국민에게 한국을 소개하려는 성격의 글을 썼지만 선교사들은 한국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을 바로 잡거나 혹은 선교 본부에 한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보고하는 성격의 글을 발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흥미를 유발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⁶⁹⁾

여성들이 남긴 저술은 남성들에 비해 숫자로는 적은 편이지만 다양한 형식을 갖춘 글들이 발표되었다. 즉 여성들은 기록물의 성격을 띤 글 외에 소설이나 시를 통해서 한국을 소개하기도 했다.⁷⁰⁾ 이 들 가운데 선교사인 경우 한국에 체류했던 여성 선교사들의 숫자가 많았던 것에 비해 기록을 남긴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다. 반면 여행가인 경우는 체류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책을 남기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5명의 서양 여성이 남긴 한국 관련 저술과 내용에 대해 책 발간 년도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사벨라 B. 비숍(Isabella Bird Bishop : 1831-1904년, 영국)

I. B. 비숍은 영국 출신 여행가이다. 목사인 아버지 에드워드 버드(Edward Bird)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독실한 기독교적 가정교육을 받았다. 사촌들이 선교사로 활동하여 외국에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 관한 견문을 늘 들으며 성장하였다. 비숍은 매우 아름다웠고 우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했

69)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1884~1910)-선교사들의 중산층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29쪽.

70) 한국을 방문한 기록을 소설로 남긴 서양 여성들이 있다. 그들은 소설을 통해 한국 사회를 비판하고 실생활을 그려냈다. 이런 소설 중 대부분은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 기금 마련을 위한 일종의 선교문학 작품이라 말할 수 있다. 이들 여성 저자들과 저술은 다음과 같다. 진페리(Jean Perry), 『The Man in Grey』(1906) ; 미네르바 구타펠(Minerva Guthapfel), 『The Happiest Girl in Korea』(1911) ; 엘리자베스 코츠워스(Elizabeth Coats Worth), 『The Captain's Daughter』(1905) ; 엘라스 와그너(Ellasue Canter Wagner), 『Kim Su Bang : and Other Stories of Korea』(1909). 또한 한국을 주제로 한 詩를 남긴 서양 여성들도 있었다. 조안사벨 그릭스비(Joan Savell Grigsby)는 한국의 고시조를 영어로 번역하여 외국에 소개하였다. 릴리안 메이 밀러(Lilian May MILLRER)인 경우 시 82편을 삽화와 함께 한국의 자연과 궁궐, 산과 들을 소개하고 있다.

지만 어릴 때부터 병약했다. 이런 병 때문에 비숍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어머니로부터 문학, 역사, 회화, 프랑스어, 성서 등을 배웠다.

<표 1> 한말 한국 방문 기록을 남긴 서양 여성과 저술

이름	국적	직업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책명
Isabella Bird Bishop 이사벨라 B. 비숍	영국	여행 작가	여행	1894 -1897 사이 4번 방문	Korea and Her Neighbors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1897)
Lillias H. Underwood 릴리아스 H. 언더우드	미국	선교사	의료 선교	1888 -1921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상투의 나라 (1904)
Constance Jane Dorothy Tayler 콘스탄스 J. D. 테일러	영국	화가	여행	1894 -1901	Koreans at Home :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 스코틀랜드 여성 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 (1904)
Ellasue Canter Wagner 엘라스 와그너	미국	선교사	교육 선교	1904 -1940	Children of Korea 한국의 아동생활 (1911)
Emily Georgiana Kemp 에밀리 켐프	영국	화가	여행	1910년 2월 방문 이후 8일간	The Face of Korea 조선의 모습 (1911)

아버지에게서 라틴어와 식물학을 배웠으며 혼자서 화학, 시, 생물학을 공부했다.⁷¹⁾ 병 치료를 위해 그녀는 1854년 23세 때부터 캐나다, 북미주를 여행한다. 이곳을 여행한 이후 발표한 『미국에 온 영국 여인』(1856)은 그녀가 여행 작가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글과 여행을 자기의 본업으로 삼게 된다. 50세 늦은 나이에 형제들의 병 치료를 위해 만난 비숍박사와 결혼을 하지만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은 단독증에 감염되어 사망하고 남편을 잃은 상실감에 그녀는 다시 우울증에 걸린다. 비숍은 남편의 죽음 이후 힘든 시간과 류마티스로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1889년 여행을 다시 시작했다. 1894년 1월 그녀는 이미 1878년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행을 통해 일본을 제외한 한국과 중국 등지를 여행하는 게 목적이었다.

비숍은 1894년부터 1897년까지 극동에 머물면서 한국을 네 차례 방문한다. 첫 방문은 1894년 2월 말, 그녀의 나이 63세 때였다. 일본에서 상선을 타고 인천에 도착한 그녀는 3월 1일 서울에 도착한 이후 한강 상류지역, 금강산, 원산 등지를 탐방하였다. 처음에는 황량한 주변모습과 언덕에는 무덤만이 즐비한데다 사람들은 소심하여 별 흥미를 느낄 수 없었던 그녀는 지방 여행을 다닌 이후 한국이 아름다운 나라임을 알고 흥미로워했다. 1895년 1월 다시 입국하여 서울에 머물면서 고종황제를 알현했고, 고양, 개성을 거쳐 평양과 덕천을 탐방하였다. 1896년 다시 입국하여 11개월을 머물면서는 주로 한강 이북지역을 다녔다.

한국에 대한 비숍의 저술은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다.⁷²⁾ 비숍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총 10권의 여행기를 남겼다.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은 그 중 9번째 여행기이다. 이러한 비숍의 여행과 여행 기록물은⁷³⁾ 여성으로 처음으로 영국지리학회회원이 되는 영광을 가져다준다. 한국에서의 그녀의 여행경로는 서울, 북한강, 금강산, 제물포, 봉천, 송도, 평양, 관서지방 등⁷⁴⁾으로 뗏목을 타거나 노

71) 이하 비숍의 생애에 대한 부분은, 비숍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1999; 이광린, 「비숍여사의 여행기」, 『진단학보』 Vol.71-72, 진단학회, 1991; 이영아, 「제국주의 여성 비숍의 여행기에 나타난 조선 여성의 표상」, 『동학연구』 Vol.24, 한국동학학회, 2008.을 참조했다.

72) Isabella Bird Bishop, "Korea and Her Neighbors", Fleming H. Revell Co., New York, 1897. (이사벨라 B. 비숍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1999.)

73) 비숍의 여행기록물은 『미국에 온 영국 여인 Englishwoman in America, 1856』, 『하와이 군도 The Hawaiian Archipelago, 1875』, 『일본의 오지 Unbeaten Tracks in Japan, 1880』 등이 있다.

74) 비숍의 여행 일정 계획표에는 서울을 출발하여 평양까지 총 여행거리 1,060리의 일정을 기록하고 있다. 각 마을과 마을 사이의 거리를 한국의 단위인 '리'로 표시하는 치밀함을 볼 수 있다.

새를 타고 다녔으며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이주한 한인들이 살고 있는 만주와 시베리아의 한인촌을 방문했을 때는 마적단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 이곳으로 이주한 한인들을 직접 보면서 본국에서와는 다른 한국인의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다.

비숍은 당시 여성들에게는 들고 다니며 찍기 힘든 사진기로 한국의 인물과 건물, 자연 등에 대한 사진을 남기고 있다.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는 실제 찍어서 남긴 50여 점의 사진 중 35점이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사진을 그대로 책에 실릴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사진을 그림처럼 목판화로 다시 복제하여 활자와 함께 인쇄하여 실었다. 뿐만 아니라 비숍의 여행일정을 볼 수 있는 “한국과 이웃나라들의 지도”와 한국에서의 일정을 보여주는 “한국의 중부지방 지도”가 실려 있다.

비숍은 한국의 대중음악으로 ‘아리랑’을 소개한다. 782소절의 아리랑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밥상에서의 쌀의 위치와 같다는 중요성을 말하고 아리랑 악보도 그려놓고 있으며, 그 외 부록에 한국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⁷⁵⁾ 비숍이 체류하는 동안 한국은 개혁의 물결에 따른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다. 동학농민혁명, 청일전쟁, 갑오개혁, 을미사변 등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전체가 37章이고 한국 여성과 관련해서는 제9장 결혼 풍습, 제29장 여성의 지위 등에서 따로 다루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록 전반에 걸쳐 여성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비숍은 1897년 한국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여행을 마치고, 1901년 모로코를 여행한 후 여독으로 1904년 68세로 사망한다.

2) 릴리아스 H. 언더우드 (Lillias Horton Underwood : 1851- 1921, 미국)

언더우드 부인은⁷⁶⁾ 37세가 되던 해인 1888년 한국에 들어온다.⁷⁷⁾ 언더우드 부

(비숍, 앞의 책, 346쪽)

75) 한국에 관한 ‘기독교 통계’(1896), ‘직접 무역 통계’(1886-1896), ‘3개 개항장에서 징수된 세금 및 관세 비교표’(1884-1896), ‘한국이 수입한 일본 및 기타 국가의 면직물 비교표’(1896), ‘한국의 수출 주요 품목 통계표’(1886-1895), ‘개항장을 통해 수입된(재수출품 포함) 주요 품목 통계표’(1886-1895), ‘한국의 개항장에 입항한 모든 선박의 입항신고 통계표’(1896), ‘한국의 3개 개항장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 (1897년 1월 현재), ‘러·일 강화조약과 조선 외부대신의 대응’ 이 실려 있다.

76) 결혼하기 전 이름은 릴리아스 S. 호턴(Lillias Sterling Horton)이었다. 1888년 입국한 그녀는

인은 엘러스의 뒤를 이어 제중원의 부녀과와,⁷⁸⁾ 황후의 주치의로 임명된다. 그녀는 명성황후를 진찰하는 의사의 역할 뿐만 아니라 황후와 좋은 관계로 지냈으며 그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⁷⁹⁾ 언더우드 부인은 을미사변이 난 1895년 10월까지 주치의 역할을 맡았다.

1년 후 먼저 한국에 들어와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8살 연하의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결혼을 한다. 이들 부부는 신혼 여행을 선교활동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서지방으로 떠난다. 그녀의 저서 『상투의 나라』에 나온 신혼여행의 모습을 보면, 남편 언더우드는 말을 타고 그녀는 가마를 타고 출발한다. 두 세필의 짐 실은 조랑말에는 의약품, 한자로 된 소책자, 모포와 침낭, 취사용구, 외국의 음식과 옷가지를 싣고 떠났다. 돈은 부피가 커서 조랑말에는 이를 동안 쓸 것 밖에 가지고 다닐 수 없었는데, 조선 외부(外部: Foreign Ministry)에서 지방의 관찰사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나면 나중에 서울로 돌아 간 후에 갚는 것으로 해주었다. 또한 여행하는데 필요한 이동 수단인 말에 대해서도 내어주라고 했다. 결혼하기 전 언더우드가 여행했을 때는 은을 들고 다니면서 도시에서 현금으로 바꾸면서 사용한 것에 비하면 한국 정부에서 서양인들을 위해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신혼여행은 서울을 출발하여 송도, 임진강, 대동강, 평양을 거쳐, 중국과 맞닿은 압록강에 이르는 여행이었다.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2개월간의 신혼여행 기간 동안 1천마일 이상을 여행했으며, 6백 명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다.

언더우드 부인이 남긴 저술은 『상투의 나라』⁸⁰⁾와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기록

이미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1889년 결혼한다. 본고에서는 남편인 언더우드와 혼동하지 않기 위해 그녀를 언더우드 부인으로 한다.

77) 저자의 생애 부분은 L. H. 언더우드 지음, 신복룡·최수근 역주, 『상투의 나라』, 집문당, 2010; 박혜수, 「언더우드 부인의 선교활동 연구: 남편 언더우드에 대한 협력과 이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를 참조함.

78) 1887년 7월 엘러즈는 감리회의 선교사이자 육영공원의 교사였던 벙커 목사(D. A. Bunker)와 결혼하였고, 1888년 후임자인 언더우드 부인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선교부 일을 도우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79) 황후는 언더우드 부부의 결혼 당일 궁전에 있는 사람들, 한규설, 민영환과 같은 최고위층 및 궁녀들을 보냈다. 당시 2,500내지 3,000냥이면 부유한 축에 속하는데 현금 100만 냥을 보냈다. 작은 말에 물건을 가득실어 축하 선물로 보냈다. 언더우드 부인이 황후를 방문한 날 비가 와서 곤경에 처하자 가마를 궁의 대기실까지 가져오도록 했다. 당시까지는 가마가 궁궐 안까지 들어올 수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황후의 언더우드 부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모습이었다.(언더우드, 앞의 책, 120쪽)

80) Lillias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American Tract Society, Boston 1904. (릴리아스 .H. 언더우드 지음, 신복룡 역주, 『상투의 나라』, 집문

인 『호러스 언더우드와 함께한 조선』⁸¹⁾ 남편의 한국에서의 일대기를 기록한 『언더우드』⁸²⁾이다. 『상투의 나라』에서는 고종황제, 명성황후 그리고 궁궐의 모습, 그곳에서 생활하는 대신, 궁녀들, 관기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언더우드 부인은 선교를 통해서 지방 평민들의 삶의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일상의 모습을 그녀의 저서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녀가 한국에 입국한 1888년 이후 한국의 급변하는 정세인 갑신정변, 을미사변, 아관파천 등에 대한 기록 역시 살필 수 있다. 『상투의 나라』는 16개의 章에 걸쳐 한국의 모습을 담고 있고, 41점의 사진이 실려 있다. 한국 여성의 생활 모습은 자료 전반에 걸쳐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선교를 위해 다닌 지역 여성들이 개신교의 영향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언더우드 부인은 의료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 등에 관여하다 1921년 10월 29일 죽음을 맞이하고, 현재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묻혀있다.

3) 콘스탄스 J. 테일러 (Constance Jane Dorothy Tayler : 1868-1948, 영국)

콘스탄스 J. 테일러는⁸³⁾ 스코틀랜드 출신 화가이다. 그녀가 한국을 방문한 시기는 그녀의 나이 26세인 1894년경이다.⁸⁴⁾ 여러 영국 여성 화가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1901년까지 한국에 머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⁵⁾ 테일

당, 2010. ; 릴리어스 H. 언더우드 지음, 김철 역,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견문록』, 이숲, 2008.

81) L. H. 언더우드, 정희원 역, 『호러스 언더우드와 함께한 조선』, 아인북스, 2013. 이 책에서는 언더우드 부부의 아들인 호러스 언더우드(한국이름 원한경)를 한국에서 키우며 겪은 일을 기록했다. 언더우드 부인은 한국 어린이와는 피부색과 머리색이 다른 아들을 키워야 하는 고민과 열악한 환경과 아이의 정체성 문제로 갈등하는 어머니의 입장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13장으로 주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을 많이 보여준다.

82) L. H. 언더우드, 이만열 옮김, 『언더우드』, IVP, 2015. 총 23장으로 구분하여 한국 땅을 밟은 남편 언더우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83) 저자 테일러의 생애에 대한 부분은 테일러, 황혜조 옮김, 『스코틀랜드 여성 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 살림, 2013.을 참조함. 1904년 휴버트 아더 쿨슨(Hubert Arthur Blenkinsopp Coulson)과 결혼한 이후 그녀는 콘스탄스 쿨슨이란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하였다.

84) 테일러(Constance J. D.Tayler), 황혜조 옮김, 『스코틀랜드 여성 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 살림, 2013. 이 책의 원본에는 출간연도가 적혀있지 않다. 옮긴이 황혜조가 미국 도서관 담당자 및 고서 전문가의 감정에 따라 책의 발간연도를 1904년으로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책의 내용을 검토했을 때 대략 그녀가 한국에 입국한 연도를 1894년으로 보고 있다.

85) 테일러, 앞의 책, 209쪽. 그렇지만 테일러는 저술의 머리말에서 몇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한국에 입국 이후 1901년 까지 계속 한국에 머물렀다가 보다는 여행가로서 주변의 다른 국가들과 한국을 오갔을 거라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난 시기가 1901년으로 짐작된다.

리의 한국 생활은 집이 있는 서울에서 주로 생활하였지만 송도와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집에는 한국인 여종 2명과 중국인 요리사를 두고, 저녁시간이면 서울 도성 근처를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 시간이면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테일러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했다. 여행기간동안 몇몇의 외국인들과 함께 궁궐에 초대되어 고종 황제를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갖기도 했고, 황후의 능에 齋를 올리기 위한 황제의 행차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

테일러가 한국을 방문한 이후 남긴 『스코틀랜드 여성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은⁸⁶⁾ 이러한 한국 방문 당시 느꼈던 인상을 기록한 여행기로 총 16장으로 이루어졌다.⁸⁷⁾ 저자는 직접 보고 느꼈던 한국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담고 있다. 자신의 집과 주변의 모습, 서울 도성 안의 저녁 풍경, 황제의 초대로 외국인 동료들과 궁궐에 들어갔던 설렘, 송도와 평양을 다녀온 이야기 등을 애정을 가진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테일러는 정치적인 상황과 같은 부분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을 밝히던 전기와 각 공관들을 연결하는 전화. 도성 밖 먼 거리까지 다니는 전차의 모습 등 서울의 변화모습 또한 기록하고 있다. 테일러의 기록에는 이러한 애정 어린 시선과는 달리 한국을 폄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군인들에 대해 ‘진짜 군인’같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가, 고종 황제에 대해 국가에 대한 책임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다는 표현을 거침없이 적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게으르고 성급하며, 일에 대해 해이하다는 달레 신부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역사를 말하면서 중국서와 일본서를 인용한다든가, 일본을 태양이 뜨는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이 이들 국가들이 한국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국가처럼 취급하고 있다. 테일러는 달레 신부의 기록을⁸⁸⁾ 많이 인용하고 있다. 특히 황제에 대해서나 한국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욱

86) Constance J. D. Tayler “Korea at Home :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 Cassell and Company, Limited, London, 1904. (콘스탄스 J. D.테일러 지음, 황혜조 역, 『스코틀랜드 여성 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 살림, 2013.) 이 책은 테일러 결혼 이후 콘스탄스 쿨슨의 『코리아 Korea』로 재 출판되었다. 다른 작품으로는 화가 핏쇼(Fitchew)와 공동 집필한 『세상 엿보기 Peeps at many』가 있다.

87) 테일러 지음, 앞의 책, 103쪽.

88) 사를르 달레(FP CH. Dallet)의 『조선 교회사 서설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이다. 저자인 달레 신부는 한국을 한 번 도 방문한 적이 없다. 한국에 온 프랑스 신부들의 편지글들을 다룬

그렇다. 더군다나 달레 신부는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데 테일러는 달레 신부가 여러 해를 한국인들과 지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테일러의 기록은 자신의 생활과 관련하거나 거리의 사람들과 풍경을 제외한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테일러의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떠나기가 아쉬운 유일한 나라라고 솔직한 심정을 적고 있다. 한국인들 역시 우애를 존중하는 미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스코틀랜드 여성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에는 그림과 사진 21점이 실려 있는데, 주로 황제를 비롯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담았고, 궁궐과 서울의 거리 등 서울 주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⁸⁹⁾ 인물인 경우 사진보다는 그림으로 주로 표현했는데 특히 남성의 모습을 많이 그렸다. 사람들의 외모와 옷차림에 관심이 많았고 인물화는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인다. 한국의 여성에 대해서는 제 9장에서 서술하고 있고, 제 10장 복장에서는 여성의 의복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인의 종교생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⁹⁰⁾

4) 엘라스 C. 와그너 (Ellasue Canter Wagner, 王來 : 1881-1957, 미국)

엘라스 C. 와그너는⁹¹⁾ 미국 버지니아 헨스터빌 출신이다. 해외 선교사의 소명을 가진 여성들이 진학하던 스캐릿 성경학교에 진학한 그녀는 졸업할 무렵 선교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그 이유는 고향 친구이며 대학 때 기숙사에서 같이 지낸 조세핀 하운셸(Josephine Hounshell)이 이미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활동하고

뤼 신부가 모아 보낸 자료를 편집해서 만든 신부들의 현장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89) 테일러가 책에 실고 있는 그림이나 사진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서울의 우리 집’ ‘서울의 외국 식 거실’ ‘한국의 신랑’ ‘병조 관사, 서울’ ‘북궁 정자’ ‘산성에서의 서울 전경’ ‘서대문, 서울’ ‘고풍스러운 서울거리’ ‘교구청 뒷마루’ ‘한국의 기혼 남성’ ‘혼례복 차림의 소년’ ‘여름 한복을 입은 어린 소녀’ ‘도성의 귀부인들’ ‘도성에서 일하는 여인’ ‘기혼 여성의 모습, 겨울 모자를 쓴 여인, 구식 군인의 관모, 궁궐에서 쓰는 머리 장식’ ‘집을 운반하는 지게를 진 머슴’ ‘미혼 소녀, 상투를 튼 기혼 남성, 기수 혹은 파발꾼, 시주 받는 수도승’ ‘상제’ ‘천지신명에게 제를 올리는 제단’ ‘김규해씨’ ‘황제의 시종’ (테일러, 황해조 옮김, 『스코틀랜드 여성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 살림, 2013).

90)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장 한국의 가정 : 서울에서, 2장 서울 묘사, 3장 아침 산책, 4장 한국의 외교, 5장 역사 : 한국의 고대 왕국, 6장 한국 기독교의 역사, 7장 황제, 8장 황제 알현, 9장 한국인, 10장 복장, 11장 사회 계층, 12장 관습과 예식, 13장 신앙과 미신, 14장 황제 행차, 15장 송도 인삼, 16장 장거리 평양 여행 순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다.

91) 와그너의 생애에 대한 부분은 E. 와그너 지음, 신복룡 역주, 『한국의 아동 생활』, 집문당, 1999.; 김성운, 『한말 일제시기 엘라스 와그너(Ellasue C. Wagner)의 한국여성교육과 사회복지사업』 『한국 기독교와 역사』 제41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4.를 참조함.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감리교선교부는 와그너가 선교지로 한국을 원했지만 러일 전쟁이 한창인 곳에 여성을 파견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한국의 상황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선교사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그녀는 한국에 오게 된다.

와그너는 1904년 한국에 도착한다. 그녀는 자신의 부임지인 송도에 가기 전 서울에서 한 달간 머무는 동안 한국인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송도의 역사를 알기 위해 관련 서적을 읽었다. 송도에서 한옥 한 채를 구입하고 12명의 여학생을 시작으로 개성여학교를 설립했다.⁹²⁾ 와그너는 1940년 일제가 그녀를 강제로 출국시키기 전까지 한국 여성들의 교육 관련한 일에 매달렸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31년 최초로 여성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감리교 감독 주삼량으로부터 「지난날의 한국을 사랑했고, 자랑스런 마음으로 새로운 한국을 바라보았다.」라는 칭찬과 「한국의 14인의 여성 선교사 중의 1인」으로 뽑히기도 했다.

『한국의 아동생활』⁹³⁾은 와그너가 선택한 선교지인 송도를 배경으로 “서방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전혀 물들지 않은” 한국인들의 옛 풍습과 생활 모습, 어린이의 모습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려고 노력한 저술이다. 책 앞장에는 그녀가 그린 한국의 어린이들 모습이 실려 있다. 어린이들이 한복을 입고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이나 서당에서 공부하는 모습, 놀이를 하는 모습 등 이다. 총 11장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 여성에 대해서는 제3장 한국의 어머니, 제9장 결혼 부분에서 여성의 교육과 결혼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와그너가 애뜻하게 생각한 한국의 어린이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5) 에밀리 G. 캠프 (Emily Georgiana Kemp : 1860 -1939, 영국)

에밀리 G. 캠프는 영국의 모험가이자 작가, 화가였다. 그녀는 부유한 기업가 집안의 침례교도였다. 옥스퍼드 서머빌대학의 최초의 학생들 중 한명이었으며,

92) 이 학교는 1909년 두을라(杜乙羅)학당으로 개명하고, 1922년 호수돈여고보가 된다. 와그너는 1938년 이후 호수돈여고보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1940년 일본에 의해 강제 귀국하게 되었다.

93) Ellasue Wagner, “Children of Korea”, Oliphants Ltd., London, 1911. (E. 와그너 지음, 신복룡 역주, 『한국의 아동 생활』, 집문당, 1999.) 이 책의 일본에는 발행연도가 적혀있지 않다. 번역자가 1985-1986년 미국 조지타운(Georgetown)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곳 도서관 귀중본실의 전문가들의 감정의뢰에 따라 발간연도를 1911년으로 기재했다.

스레이드 미술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미술을 전공한 캠프는 중국, 한국, 인도,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마존을 여행하면서 글과 함께 스케치와 그림을 남겼다. 풍경화가인 캠프는 왕립 스코틀랜드 지리학회 회원이며 그녀의 작품은 알파인클럽 갤러리(9점), 워커 아트갤러리(1점), 여성 예술가협회(2점)에 소장되어 있다.

캠프는 1910년 2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 4개월 여정의 여행을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총 8일간 머물렀으며 평양, 서울, 부산, 금강산을 방문했다. 그녀의 동양에 대한 호기심은 러일전쟁이후 러시아와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한국과 만주의 변화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게 만들었다. 『조선의 모습』⁹⁴⁾은 만주 국경부터 기록하기 시작한다. 캠프는 이 지역에 대해 발표된 많은 글들이 있지만 그녀가 원하는 내용이 없을뿐더러 자신이 이미 기록했던 글과도 중복을 피하고 현재의 모습을 담고 싶어 했다. 화가였던 그녀는 글과 함께 그림으로 이들을 묘사하고 있다. 캠프는 교육과 여성의 복지, 그리고 종교인들의 활약에 관심이 갔다. 그림은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히 그리려고 노력했고, 그녀만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색깔을 보여주려고 했다.

캠프는 개신교의 영향과 변화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짧은 여행기간 동안 일부러 선교의 현장을 찾아간 기록도 볼 수 있다. 캠프의 중국 심양에서 출발하여 한국에서의 일정은 평양-서울-부산-금강산-서울을 여행하면서 다른 여행자들과는 달리 남쪽 끝 부산까지 갔다 오는 열정이 있었다. 비숍이나 테일러, 캠프처럼 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한 서양 여성들의 기록은 한국의 실상과는 다른 잘못된 부분도 있다. 이는 짧은 여행기간과 기존의 책들로부터 얻은 한국에 대한 선입견에서 온 오류일 수 있지만 한말 서민층 여성 생활에 관한 국내 자료가 미흡한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 기록들은 유익한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94) E. G. Kemp, F. R. S. G. S. "The Face of Korea", Duffield & Company, New York, 1911. (E. G. 캠프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의 모습』, 집문당, 1999.)

Ⅲ. 서양 여성의 한국 여성 인식

한국에 대한 기록을 남긴 서양 여성들은 영국과 미국 출신의 여성들이다. 이 가운데 3명의 여행가들은 영국의 중산층 여성들이다. 영국의 중산층은 귀족에 속하지는 않지만 금융가, 자본가, 의사, 법률사,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류이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성에게 가사 일 외 자유가 허락된 부류라 할 수 있다. 2명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미국 중산층 집안 출신의 여성들로 언더우드선 장로교 선교사로 와그너는 감리교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된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선교 활동에서 중요시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장로교는 교리를 중심으로 한 선교를, 감리교는 의료와 교육 등 의식 계몽을 통한 선교를 중점으로 한다. 그들은 미국 중산층 중하부 출신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성장 배경과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여성들이다. 이들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공통적으로 신앙심이 깊고 도덕적으로 매우 엄격하며, 검소하고 부지런하며 정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5명의 서양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혼인 생활 제약과 가사 노동

1) 혼인 생활 제약

서양 여성들이 한국 여성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갖은 부분은 혼인의 풍습이다. 조혼, 축첩, 과부의 재가의 모습 등은 방문 당시 독신이었던 5명의 여성들에게는 낯선 혼인문화를 접하는 기회였다. 이에 서양 여성들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혼인 생활 관련 부분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비숍은 한국을 네 번 방문하는 동안 서울뿐만 아니라 제물포, 금강산, 평양, 송

도, 관서 지방 등 한국의 여러 지방을 여행했지만 어떤 곳에서도 여섯 살 이상의 소녀를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남녀칠세부동석이란 유교적 관습에 따라 그들은 결혼할 때까지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을 제외한 다른 어떤 남자들도 만날 수 없었으며,⁹⁵⁾ 아직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상대방을 선택하는 결정권도 본인에게는 없었고 아버지가 정해주는 남성과 결혼을 했다.

젊은 남녀가 서로의 배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결혼은 아버지에 의해 결정되며 당사자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남자의 혼인 연령은 보통 17~18세이다. 마땅한 배필을 남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생각을 신부의 부모가 하게 되면 신부는 어린애로서 혼례를 치를 수도 있다.⁹⁶⁾

결혼은 자식 대신 부모에 의해 정해지며, 신부와 신랑이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혼인은 대개 열둘에서 열다섯의 나이에 한다.⁹⁷⁾

소녀들은 아주 어린 때면 8살 때, 그러나 대개 12살에서 16살 사이에 한 소년과 결혼을 하는데 대부분 그 소년은 그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⁹⁸⁾

비숍은 남자들인 경우 보통 17~18세에 소녀들은 12살에서 16살 사이에 결혼을 하지만 8살 어린 나이에도 그녀의 부모님이 좋은 배필을 남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결혼을 했다고 한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나온 조혼 방지 개혁안에 의하면 법정 혼인 연령을 남자 20세, 여자는 16살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풍습은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아 부모에게 효도하는

95) Isabella Bird Bishop, "Korea and Her Neighbors", Fleming H. Revell Co., New York, 1897. (이사벨라 B. 비숍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 집문당, 1999. 333쪽.) 이 후 3장에서 이 책에 대해 언급할 경우는 저자와 해당 페이지만 적는 걸로 하겠다.

96) 비숍, 앞의 책, 117쪽.

97) Constance J. D. Tayler "Korea at Home :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 Cassell and Company, Limited, London, 1904. (콘스탄스 J. D.테일러 지음, 황혜조 역, 『스코틀랜드 여성 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 살림, 2013. 158쪽.) 이 후 3장에서 이 책에 대해 언급할 경우는 저자와 해당 페이지만 적는 걸로 하겠다.

98) Ellasue Wagner, "Children of Korea", Oliphants Ltd., London, 1911. (E. 와그너 지음, 신복룡 역주, 『한국의 아동 생활』, 집문당, 1999. 31쪽.) 이 후 3장에서 이 책에 대해 언급할 경우는 저자와 해당 페이지만 적는 걸로 하겠다.

게 최고의 미덕임을 강조했고 어린 신부는 아버지의 권유를 당연히 받아들였다.

조혼에 대한 기록을 남긴 비숍과 테일러의 저술은 1897년, 1904년 발표되고 와그너인 경우 1911년이다. 이와 같은 발표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갑오개혁 이후 3년~17년이 지났지만 당시 나온 조혼 금지령은 조선 초기부터 유지해 온 조혼 풍습을 극복하지 못했고 조혼은 여전히 사회적 관습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기록을 남긴 비숍, 테일러, 와그너는 한국 방문 당시 모두가 독신이었다. 비숍은 50세에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고, 테일러는 한국 방문이후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결혼을 했고, 선교사인 와그너는 평생을 혼자 살았던 여성이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중산층 여성들에게는 결혼에 대한 의무감이 없었다. 남성들이 전쟁과 식민지국가로의 이사 등으로 영국에는 독신 여성들이 생겼고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한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자란 두 명의 영국 여성 여행자들이 10대의 어린 나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성과 결혼해 평생을 살아야 하는 한국 여성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여자는 결혼으로써 운명이 결정된다. 7세부터 아버지의 견고한 굴레에 갇혀 살아오던 소녀는 17세가 되면 시대의 엄한 담장 속에 갇혀 살게 된다.⁹⁹⁾

만약 시어머니가 친절하고, 또 다행스럽게도 그가 사내아이를 가진다면 그의 가정생활은 정말 행복하다. 그러나 시어머니께 꾸중을 듣는 불쌍하고 어린 부인에게 시집살이란 집 지키는 종살이와 같은 생활이다.¹⁰⁰⁾

결혼이 남성과 여성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모습은 아주 달랐다. 비숍은 남성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애송이와 같은 존재이지만, 결혼을 함으로써 주위로부터 존경과 함께 어른으로 대접을 받는 위계적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하지만 여성은 결혼으로 또 다른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여성들은 결혼 이후 남편의 집안인 시대 담장 속 공간에 다시 갇혀 살게 되고, 시어머니의 성품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렸다고 한다. 양반 집 여성들은 안채라

99) 비숍, 앞의 책, 116쪽.

100) 와그너, 앞의 책, 31쪽.

는 공간에서 하루 종일 집안일에 얽매이다 보면 마치 그들은 시집살이가 집 지키는 종살이와 다름없는 생활이라 생각되어졌다. 결혼한 여자들에게 요구되어진 최고의 미덕은 조상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위하여 조상을 모실 아들을 낳아 시집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었고, 그녀의 아들은 시집살이에 힘든 여성들이 꿈꾸는 희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즉 여성들은 그들의 아들을 빨리 결혼시켜 고된 일을 며느리에게 넘겨줌으로써 종살이에서 종을 부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비숍과 테일러가 결혼에 대한 사회적 관습에 대해 주목한 반면, 와그너는 여성들의 결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감리교 선교사로 파견된 와그너는 한국의 여성과 어린이에 대해 애정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결혼이 여성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인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비숍과 테일러는 결혼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한국 여성들의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테일러는 한국에서의 평범한 결혼 생활이 서양 여성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행복할지도 모르며,¹⁰¹⁾ 비숍은 이러한 관습이 반드시 고난을 가져온다는 것은 서양인들만의 생각일지도 모른다고 했다.¹⁰²⁾ 이는 서양 여행가들은 선교사들의 방문 목적과는 달리 자유로운 여행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고, 여행가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여행지의 역사, 문화, 풍속 등에 대해 이해하려는 자세에서 나온 인식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서양 여성들이 혼인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남편이 아내 이외 또 다른 부인을 갖는 축첩의 모습이었다.

축첩은 공인된 관례이지만 존경받지는 않는다. 남편의 아내와 어머니가 첩을 선택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첩은 남편의 위치의 정당한 부속물이어서 우리가 마차나 집사를 고르는 것처럼 아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 첩의 자식들은 심각한 사회적 오점으로 낙인찍히며 최근까지도 바람직한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 홀아비가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갖는다 해도 첫째 아내의 자식들이 특별한 권리를 보유한다.¹⁰³⁾

101) 테일러, 앞의 책, 158쪽

102) 비숍, 앞의 책, 117쪽.

103) 비숍, 앞의 책, 333쪽.

남자의 즐거움은 여자 친구나 기생을 통해서 얻어진다. 「우리는 아내와 결혼하지만 첩과 사랑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한 조선 양반의 표현으로 그들의 결혼 관계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¹⁰⁴⁾

축첩에 대해서 기록을 남긴 여성은 비숍이 유일하다. 조혼에 대해 언급했던 테일러와 와그너는 남성들의 축첩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국인의 삶은 법보다는 관습이 먼저여서 법적으로 일부일처제임에도 불구하고 관습에 의해 축첩은 인정되는 행위였다. 심지어 부인과 남편의 어머니가 함께 첩을 고르기도 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여성들이 첩을 남편의 정당한 부속물로 생각한다는 데 근거하고 있다. 그들은 동성의 여성이지만 첩을 마차를 고르는 것과 같이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고르듯이 남성을 위해 여성을 선택하고 있는 모순에 빠지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비해 얼마나 열악하고 심지어 같은 여성들조차 여성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반계층의 남성은 축첩제도의 합법화로 인해 부인 이외의 여자와 자유롭게 관계를 가질 수 있음으로 인해 결혼과 사랑을 따로 생각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비숍은 비록 첩을 얻는 것이 허락되고 있지만 그런 모습은 존경받는 행동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첩의 자식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바람직한 위치에 오르지도 못하는 반면, 첫째 부인과 그 자식들은 그 권리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윤리의식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서양 여성들이 혼인과 관련해서 관심을 보인 건 과부의 再嫁였다. 테일러와 비숍이 여성의 再嫁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부들이 재혼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런 행실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남편이 죽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자가 부부 정절의 본보기로 존경을 받는다.¹⁰⁵⁾

지금 여자들은 재혼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16살이 될 때까지 미혼으로 남아 있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내는 한 지붕 밑에서 첩과 함께 사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

104) 비숍, 앞의 책, 334쪽.

105) 테일러, 앞의 책, 159쪽.

다.¹⁰⁶⁾

테일러는 한국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면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반면, 여성들인 경우 남편이 죽은 후 따라 죽는 게 부부 정절의 본보기로 존경을 받았으며 만약 여성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는 존경받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봤다. 조선 시대 여성들에게 요구되어진 三從之道 女必從夫는 여성에게 가해진 무언의 억압이었고, 이 유교적 규범은 남편이 살아 있을 때만 부인에게 강요되는 게 아니라 죽었을 때도 요구되어졌다고 했다.

한편, 사회적 규범과는 달리 법으로는 여성들의 재가를 허용하고 있다. 비숍은 한국 여성에게 남편이 죽었을 경우 다시 결혼 할 수 있는 再嫁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조혼이나 축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법 조항에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이는 비숍의 경우 갑오개혁 내용 가운데 혼인과 관련한 개혁 조항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비숍은 한국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에 와 있었던 서양인들과 그들이 만든 잡지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¹⁰⁷⁾ 영국 최고의 여행가로 알려진 그녀는 여러 국가들을 여행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사전지식을 얻고 왔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주변의 도움을 받고 현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비숍과 테일러의 기록을 통해 유교적 잣대로 남편과의 사별 이후 여성에게 열녀가 되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규약과 법의 개혁안은 여성의 再嫁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회적으로 용인 받지 못하고 있는 변혁기의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다.

2) 가사 노동

106) 비숍, 앞의 책, 334쪽.

107) 비숍은 책 머리말에서 한국 총영사인 힐리어 경(Walter C. Hillier), 해관총세무관인 브라운(J. McLeavy Brown), 러시아 공사 웨베르(K. I. Weaber), 존스(G. Hebert Jones)목사와 게일(James Gale)목사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관습에 대해서는 『코리언 리포지터리Korean Repository』와 『서울 인디펜던트Seoul Independent』와 영국 대리 부영사인 윌킨슨(W. H. Wilkinson)의 『한국 정부』(Korean Government)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현대를 사는 여성들은 대부분 집안일을 기계의 도움으로 해결한다. 기계가 여성의 가사 노동을 수월하게 한 것은 역사가 그리 오래지 않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지만 여성들은 그 일에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야했고 아이를 낳으면 육아의 책임까지 지어야 했다. 한말 여성들의 가사 노동에 대한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서양 여성들이 본 한국 여성들의 주된 일은 집안일인 음식준비와 빨래, 그리고 육아였다. 가장 기본적인 가족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밥하고 상 차리고 먹은 다음 설거지하기 등의 노동이 하루에 두세 차례 되풀이된다. 그리고 집안청소와 빨래하기 등 노동의 연속이었다.

모든 시냇가에는 평평한 돌 위에 쭈그리고 앉아 더러운 옷을 물속에 담갔다가 쥐어짠 다음 평평한 돌 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내려치며 세탁하는 여자들이 모여 있다. (...)빨래의 과정은 우선 나뭇재로 만든 켓물에 빨래를 담근다. 이렇게 짠 다음 화려한 태양 아래서 말려 쌀밥으로 약간 풀을 먹인다. 그 다음에 한참 동안 다듬이질을 하면 흰색 면은 희미한 흰색 공단처럼 보인다. 흰색 옷, 특히 거울에 있는 솜바지 저고리는 여자들에게 끊임없는 노동을 강요한다.¹⁰⁸⁾

비숍은 길거리에서는 여성들을 보기 힘들었지만 시냇가에 모여 앉아 평평한 돌 위에 빨랫감을 올려놓고 옷을 빠는 여성들의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제주의 해안 마을에는 바다 가까이 물통이 있는 곳을 볼 수 있다. 그곳은 보통 먹는 물과 음식의 재료를 씻는 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래하는 물 등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시냇가의 상황은 이와는 다르지만 깨끗한 물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리기 좋은 평평한 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숍이 본 것은 빨래터의 여성들 모습이다. 비숍은 흰색 옷을 깨끗하게 빨기 위해 켓물에 빨래를 담그고 햇빛에 말린 후 풀을 먹이고 한참동안 다듬이질을 하는 세탁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집안 일 중 하나인 빨래를 위해서 거치는 단계마다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끊임없는 노동 현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나는 이 도시에서 조선의 세탁방법이 나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례를 가지고

108) 비숍, 앞의 책, 331쪽.

있다. 그들은 보통 시냇가에서 돌 위에 옷가지를 놓고 마구 두드리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조심하기 위해서 작은 단추를 모두 떼어낸다.(...)조선의 옷은 다림질하기 전에 뜯어야 하며,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나뭇조각 위에 놓고 아름다운 광택이 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세게 두드린다.¹⁰⁹⁾

그들은 옷을 하얗게하고 잘 세탁하는데 가장 원시적인 도구를 가지고 끝없는 시간과 정열을 쏟는다.¹¹⁰⁾

반면 언더우드 부인은 세탁 방법에 대한 불평을 털어 놓고 있다. 언더우드 부인은 신혼여행 중 평양에 갔을 때 여성들의 빨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탁방법이 나쁘다”는 불평을 털어놓고 있다. 빨래 과정 중 방망이로 두드리는 다듬이질을 할 경우 단추는 미리 떼어내고 손질이 다 끝났을 때 다시 단추를 달아야한다. 빨래를 하기 전 옷에 있던 단추가 빨래 이후 가져온 옷에는 단추가 없는 옷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이였다. 캠프 역시 빨래를 하면서 원시적 도구의 사용으로 여성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한다.

초창기 선교를 위해 한국에 상주한 여성 선교사들은 한국적 상황에 대해 적응하지 못했다. 자국에서 익숙한 삶의 방식대로 살려고 했고, 자신들을 한국인들과 동일시하지 않으려 했다. 언더우드 부인은 한국에 입국 한 1년 후 동료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으로 한국의 관서지방으로 향한다. 선교사인 언더우드 부인이 신혼여행 중 겪었던 빨래와 관련된 기록과 소회는 이와 같은 초기 여성 선교사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밤새도록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는 오직 남자들의 옷만을 다루는지 여자들의 옷은 매우 더럽다.¹¹¹⁾

109) Lillias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American Tract Society, Boston 1904. (릴리아스. H. 언더우드 지음, 신복룡 역주, 『상투의 나라』, 집문당, 2010. 75쪽.) 이 후 3장에서 이 책에 대해 언급할 경우는 저자와 해당 페이지만 적는 걸로 하겠다.

110) E. G. Kemp, F. R. S. G. S “The Face of Korea”, Duffield & Company, New York, 1911. (E. G. 캠프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의 모습』, 집문당, 1999. 34쪽.) 이 후 3장에서 이 책에 대해 언급할 경우는 저자와 해당 페이지만 적는 걸로 하겠다.

111) 비숍, 앞의 책, 331쪽.

가난에 찌들고 어머니는 너무 바빠 자녀들의 옷을 빨거나 만들어 줄 수가 없다.¹¹²⁾

서양 여성들은 밤새 다듬이질 소리에 잠을 깨곤 하는 불편함을 호소한다. 한국의 여성들은 낮 동안의 피곤함을 참고 잠을 쫓으며 다듬이질에 시달리지만 정작 깨끗한 흰옷을 입은 남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그녀들의 옷은 깨끗하지 못했다. 비숍은 이처럼 한국 여성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동을 요구하는 빨래는 오로지 남성들의 옷을 위한 노동임에 안타까움을 호소한다. 비숍이 국가인 영국의 중산층 여성 모습을 보자. 영국 중산층 여성들은 3~4명의 하인을 두고 집안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자국 여성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비참한 한국 여성들의 모습으로 비취졌을 것이다.

1904년 송도에 파견된 선교사인 와그너는 여성들이 가난에 찌들고 해야 할 일들로 바쁘기 때문에 정작 본인이나 아이들의 옷은 깨끗하게 빨거나 새로운 옷을 만들어 줄 시간이 없었던 여성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는 초기 선교사인 언더우드 부인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녀들은 하루 종일 집안이나 들판에서 노동을 하며, 밤늦도록 앉아 흰색의 긴 두루마기를 빨거나 손질한다.¹¹³⁾

농촌 여성들은 가족들의 옷을 만들고, 모든 요리를 하고, 무거운 공기와 절구로 쌀을 찼으며,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며, 물을 길고, 먼 거리에 있는 밭에 나가 일을 하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쉬며, 실을 뽑아 베를 짜며, 한결같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 세 살이 될 때까지 젖을 떼지 않는다.¹¹⁴⁾

농촌 여성의 일상을 보면 그들은 집안 살림과 더불어 밭농사 길쌈 등의 생산 노동을 담당했다. 농번기에는 모심기 등에 참여하여 남성들의 보조자로서 농사일을 뒷바라지하기도 했다. 테일러는 농촌 여성들인 경우 남성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밭일도 해야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남성들의 옷을 손질하기 위해 늦

112) 와그너, 앞의 책, 23쪽.
113) 테일러, 앞의 책, 157쪽.
114) 비숍, 앞의 책, 331쪽.

은 밤까지 일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던 농촌 여성들의 모습을 보았다. 비숍은 가족들의 옷과 신발을 만들고, 베틀로 천을 짜야하는 자급자족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고 심지어 아이를 많이 낳고 세 살까지 젖을 물려야 하는 어머니의 역할까지 여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노동의 범위에 대해 꼬집어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사노동으로 인해 한국 여성들은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고 후줄그레하게 보였다.

그들은 서른 살에 이미 쉰 살로 보이며 마흔 살에 이가 거의 빠진다. 개인적인 몸치장마저도 인생의 초반에 사라져 버린다.¹¹⁵⁾

일부 좋은 가문의 여인들과 잘 생긴 용모로 선발된 몇몇 무희들 혹은 기생들 외에 여성들의 모습은 후줄근하다. 대부분 일이 고단해서일 것이다.¹¹⁶⁾

63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극동 아시아를 여행중인 비숍의 입장에서는 거리에서 본 한국 여성이 쉰 살로 여겨졌는데 실제 나이가 서른 살이고, 마흔 살인 여성의 치아가 거의 빠진 모습에 당혹감을 가졌다. 한국인의 외양에 관심이 많았던 테일러는 가사노동에 얽매인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외모를 비교하고 있는데, 노동에 시달리지 않는 좋은 가문의 여성들과 무희, 기생들의 모습은 아름답다고 한다. 서양 여성들은 한국 여성들이 나이보다 늙어 보이거나 빠진 치아를 비롯하여 허술한 외양은 여성들이 감당해야하는 노동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양반집 며느리들의 유일한 희망은 언젠인가 그도 자기의 며느리에게 차례로 고된 일을 넘겨주고, 자신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종을 부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¹¹⁷⁾

농촌 여성들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고된 일을 며느리에게 전가할 때까지 꾸준히 일만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¹¹⁸⁾

115) 비숍, 앞의 책, 331쪽.

116) 테일러, 앞의 책, 157쪽.

117) 와그너, 앞의 책, 31쪽.

118) 비숍, 앞의 책, 331쪽.

비숍과 와그너는 양반집 여성이든 농촌의 여성이든 한국의 모든 며느리는 가사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열망을 말하고 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결혼은 오히려 여성들에게 시집살이와 가사 일로 인한 고된 인생의 시작을 예고했다. 남편과의 애정은 결혼식 이후 3일 만에 끝나고 그들에게 남겨진 건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었다. 특히 농촌 여성들인 경우 집안 일 뿐만 아니라 농사일도 감당해야 하는 일의 시달림으로 인생에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비숍의 나라 영국 도시 노동자 계층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 역시 집안일과 더불어 가업을 돕는 일을 해야 했다. 그들은 심지어 어릴 때부터 베틀로 직물을 짜거나 실을 잣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 상류층 여성과 중산층 여성들은 가정의 일에 대해 자유롭지만 노동자 계층은 집안일과 함께 가업을 도와야 하는 이중고가 있었다. 이는 근대화가 앞선 영국조차 여성들 생활에는 계층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농촌 여성들이 일로 인해 인생의 즐거움이 없다고 한 비숍은 자국의 노동자 계층 여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고찰은 있었을 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조선의 여성들은 대개 아름답지 못하다. 이제까지의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을 사랑하고 자매처럼 생각하는 나는 이 점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 25세가 넘는 여성들 중에는 외관적인 아름다움을 쓸데없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걱정 근심과 노동으로 고생한 표시가 아직 보이지 않는 작은 소녀들과 젊은 부인들 가운데는 예쁘고 매력적이며, 드물긴 하지만 아름답고 밝고 귀족적인 얼굴도 종종 있다.¹¹⁹⁾

언더우드 부인은 37세에 선교를 위해 입국한 이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이후 생의 마지막까지 한국에서 생활한 대표적인 초기 여성 선교사이다. 그녀는 한국 여성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외관상으로는 아름답지 못하다는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서 그 원인이 노동에 있다고 보고 있다. 소녀 시절, 결혼 초 여성의 예쁘고 매력적인 모습은 이 후 여성에게 지워진 노동의 무게로 인해 무감

119) 언더우드 부인, 앞의 책, 34쪽.

각해지고 상처투성이 모습으로 변한다고 말한다. 선교사인 언더우드 부인은 미국 중산층 출신의 여성으로서 그들이 추구하는 여성에 대한 가치관 중 하나는 여성은 아름답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성의 외모에 대한 이런 언급은 자국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말 할 수 있다.

2. 주거 공간과 복식 규제

1) 주거 공간

한말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없었던 시대 여성들의 주된 삶의 공간은 집 안이었다. 남녀칠세부동석, 남녀유별과 같은 유교적 규범은 여성들이 남편 이외 다른 남성과의 만남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들의 행동반경을 집안의 안채로 한정했다.

가장 미천한 계급을 제외한 모든 젊은 여자들과 나이 먹은 여자들은 법의 힘보다도 더 강력한 관습에 따라서 집 안채에 격리되어 있다. 상류 계급의 여자는 무조건 숨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불변의 규칙이다.¹²⁰⁾

비숍은 모든 여자들은 집 안채에 격리되어 있으며, 특히 상류계층의 여성들은 무조건 숨어 살아야 했다. 이러한 규범에서 제외된 여성은 낮은 계층의 여성들이었다. 상류계층의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유교적 잣대는 낮은 계층 여성들보다 엄격했다.

만약 부인이 양반 가문의 출신이라면 가까운 친척을 제외한 어떤 남자도 그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낯선 남자가 그녀의 손을 건드렸기 때문에 슬픔과 수치심에 싸여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것이 부덕(婦德)으로 여겨지는 한 여인의 이야기도 있다.¹²¹⁾

120) 비숍, 앞의 책, 332쪽.

121) 와그너, 앞의 책, 32쪽.

와그너는 상류계층 여성들에게 더 강요되었던 이러한 관습으로 인해 불행해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양반계층 여성인 경우 낯선 남자의 손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어서 외출 시 같이 간 하인이 자신의 손이 스쳤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와그너의 한국 체류는 비숍 방문 이후 10년이 지난 시기였지만, 여전히 양반층 여성들에겐 남성들과의 만남을 차단하는 사회적 관습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제의 정도가 계층별로 다른 이유는 가옥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양반 계층의 가옥 구조는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와 남성들의 공간인 사랑채가 있음으로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계층의 가옥구조에는 사랑채가 따로 없음으로 인해 타인과의 만남이 양반계층의 여성들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양반택 규수는 시택에 들어가서 산다. 부인의 방은 엄격하리만큼 은밀한 공간이다. 남편을 제외한 아버지나 다른 남자 어느 누구도 그 새택의 방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 계층의 집안들은 남자들을 위한 응접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채를 항상 가지고 있다.

농부, 상인, 장인 그리고 객주의 부인과 같은 중류 계층의 여성들은 상당한 자유를 누린다. 왜냐하면 이 계층의 대다수 사람들은 사랑채를 가질 수 없고 친척들은 보다 빈번하게 안채를 방문하기 때문이다.¹²²⁾

상류계층 여성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인 안채에는 남편을 제외한 어떤 남자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는 은밀한 공간이며, 방문객은 그들에게 눈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안부를 묻는 것도 예외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마치 그 집에 여자가 없는 것처럼 처신해야 했다.¹²³⁾ 반면 중류층 가옥인 경우는 보통 두세 개의 방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채가 없음으로 인해 친척들이 안채를 방문할 때 여성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노출됐고, 상류층 여성들처럼 갇혀진 공간에서 생활하지는 않았다. 가장 낮은 계층인 경우 부엌이 달린 단칸방에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

122) 와그너, 앞의 책, 32쪽.

123) 비숍, 앞의 책, 332쪽.

인 관계로 여성만의 공간은 따로 없었다.¹²⁴⁾ 이는 계층에 따라 다른 주거 공간은 가족 관계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성격도 보여주는 것으로 부부유별의 유교적인 윤리와 예의를 주거공간을 통해 통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⁵⁾

한편, 한국 여성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서양 여성들의 인식과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생각은 다소 달랐다.

그들이 자유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모험이며 그들은 유용한 가재도구이기 때문에 엄격히 보호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서양인인 우리는 여성에 대한 그러한 대우에 대해 분노를 느끼기 쉽지만 여인네들의 조심스러운 폐쇄성은 오히려 자신을 좀 더 많이 드러냄으로써 부딪힐 수도 있는 부도덕한 상황들에 대해 최상의 보호책이 된다.¹²⁶⁾

비숍은 한국의 여성들은 집안에서 필요한 가재도구처럼 보호받고 있고, 타인에게 모습이 드러났을 때 오히려 부도덕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봤다. 이런 까닭에 여성들은 엄격히 보호받기를 원했으며, 서양 부인들이 즐기는 자유에 대하여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여성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된다.¹²⁷⁾ 한국의 여성들은 안채라는 가옥 구조가 여성을 옥죄는 사회적 규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호해주는 울타리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왜그녀는 집 안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폐쇄성은 여성들을 무지와 미신에 의지하게 만들고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하지만 남성들은 이런 구조가 여성들이 그들에게 복종하게 하는데 필요하다 여겼다. ¹²⁸⁾

한말 한국을 방문한 서양 여성들은 자유롭게 여행을 하거나, 자신의 인생 목표를 위해 낯선 이국땅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었다. 그들 간에도 여성의 폐쇄성에 대한 견해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했던 비숍은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는 없지만 한국 여성들의 생각을

124) 왜그녀, 앞의 책, 26쪽.

125) 이이효재, 앞의 책, 112쪽.

126) 비숍, 앞의 책, 333쪽.

127) 비숍, 앞의 책, 333쪽.

128) 왜그녀, 앞의 책, 32쪽.

이해하려는 여행가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반면, 감리교 선교사인 와그너는 한국 여성들이 겪어온 모든 어려움과 부당함의 원인은 주거 공간의 폐쇄성에 있다고 보고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여성 간 인식의 차이는 한국을 방문한 목적에 있다. 여행가는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그들을 인식하게 되고, 선교사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해결해 주고 싶은 입장이기 때문이다.

상류계급이나 중류 계급의 여자들이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밤에 나가며, 남의 집을 방문할 때는 엄격하게 밀폐된 가마를 타고 외출한다.¹²⁹⁾

안채에서의 생활공간에 묶여 있었던 여성들에게도 외출이 허락되는 시간이 있었다. 비숍이 기록한 여성들의 외출 모습을 보면 상류층 여성들의 외출이 가능한 시간은 밤이 되었을 때이고, 밀폐된 가마를 이용해야만 외출이 가능했다.

양반집 여성들은 하인이나 나이 많은 여자와 함께 한다면 부인은 그의 여자 친구나 친척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는 길고 두꺼운 소위 장옷 속에 그녀의 얼굴을 철저히 가리고 거리로 나갈 수 있으나 사방이 막힌 상자처럼 생긴 가마로 운반된다.(...) 중류층 여성들은 남들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거리를 나갈 수 있으나 장옷을 쓰지 않고 나갈 수는 없다. 나이든 여성들은 종종 소위 이러한 규율들을 어기지만, 젊은 여성들이 지나갈 때 그의 검은 눈을 한쪽만이라도 볼 수 있기란 드문 일이다. 가장 낮은 계급의 여성들은 장옷을 쓸 수도 없다.¹³⁰⁾

와그너의 기록을 통해 여성의 외출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 와그너 역시 비숍이 본 것처럼 양반층 여성들이 외출하려면 사방이 막힌 가마를 타고 장옷을 걸치고 하인을 대동해야만 외출이 가능한 것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다 한다. 심지어 양반층 부인의 외출은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했고, 남편은 부인의 외출을 확인하기도 했다.¹³¹⁾ 이는 여성들의 주거 공간 속 규제와 더불어 외출의 모습에 대해서도 계층 간 차이는 있었음을 보여준다. 여성들의 외출은 하루 중 아

129) 비숍, 앞의 책, 332쪽.

130) 와그너, 앞의 책, 33쪽.

131) 비숍, 앞의 책, 121쪽.

무 때나 가능하지는 않았고 시간에 대한 규제도 있었다.

8시경이 되면 거대한 종이 울리는데 이는 남성들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신호이며 그제야 여성들은 밖에 나가 즐기며 그들의 친구를 방문한다.¹³²⁾

비숍은 집안에 갇혀 있던 여성들이 밖에 나가 친구를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은 해가 지고 난 이후 8시경부터라고 한다.

6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완전히 폐지된 이상한 관습이 있었는데, 해질 무렵부터 새벽 1시까지 서울의 거리는 여자들 차지였다. 해가 저물어 큰 종이 울리면 모든 남자들은 서둘러 귀가했다. 이 신호를 어기면 매우 가혹한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이때 지체 높은 집안의 여인들은 몰래 은둔의 생활에서 빠져나왔다.¹³³⁾

비숍과 와그너가 본 여성의 외출시간과는 다르게 본 경우가 있다. 테일러에 의하면 여성들의 유일한 밤 시간 외출에 대해 이제는 폐지된 6년 전 이상한 관습이라고 보고 있다. 여성의 외출 시간에 대해 동시기에 방문한 비숍과 테일러의 기록이 상당히 다른데, 테일러는 비숍이 한국을 떠난 이후 4년을 더 머물렀다는 점과 비숍이 전국을 다닌 여행 일정과는 달리 테일러는 여성의 생활 변화가 가장 빨리 온 서울에서 머물면서 지켜본 기록이어서 다르지 않나 추론해본다. 와그너의 경우는 그녀가 머물렀던 지역이 서울이 아닌 송도라는 지방이어서 변화의 모습이 다소 늦게 나타난 원인이 아닐까 여겨진다.

2) 복식 규제

조선시대 여성의 복식은 시기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조선 중기 이후 여성들의 저고리 길이는 짧아진다. 저고리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치마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길어졌다. 길이가 짧아지면서 상체에 밀착된 저고리와는 대조적으로 치마 부분은 속옷을 겹겹이 입어 풍성하게 강조하였다. 또한 외출복과는 달리 일상

132) 비숍, 앞의 책, 56쪽.

133) 테일러, 앞의 책, 160쪽.

생활에서는 거들치마를 많이 사용했는데, 거들치마는 올려서 끈으로 묶었는데 끈의 위치는 왼쪽에 있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치마를 올려 끈으로 묶는 방법은 노동복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불편했던 점을 고려해 활동성과 더불어 여성성을 갖춘 옷의 변화 모습이다. 여성들의 옷이 활동성을 갖춘 옷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여성의 노동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 여성의 노동력이 점점 필요했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윗옷으로는 면이나 마 소재의 짧은 윗도리 한두 겹을 입고, 통 넓은 바지위에 몇 폭의 천으로 만든 치마 두세 가지를 둘러 입는데, 치마끈은 왼팔 밑에서 묶는다.(...) 귀부인의 한복은 비단이나 향라 소재를 쓰거나, 땅에 닿아 접힐 정도로 치마 길이를 길게 한다는 점에서 가난한 여성들의 옷과는 다르다.¹³⁴⁾

화가인 테일러가 본 여성들의 의복이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옷의 소재와 옷의 길이에 대해서이다. 테일러는 서울에 도착한 이후 여름 저녁나절 집 주변 산책 나서는 것을 좋아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산책 나온 여성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옷은 면과 마를 소재로 한 짧은 저고리와 통 넓은 속바지 위에 여러 폭의 치마를 둘러 입은 모습이었다. 서민층 여성들이 활동하기 편하게 치마의 길이가 짧은 것과는 달리 양반 계층의 여성들은 비단 같은 고급 천을 이용한 한복을 입고 치마의 길이는 땅에 닿을 만큼 긴 특징을 보였다.

테일러의 기록을 보면 조선 중기 이후 여성 의복의 특징과 그녀의 관찰이 정확하게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고리와 치마의 길이, 거들치마를 끈으로 묶는 모습, 끈의 위치가 왼쪽이라는 특징 등이 그렇다. 이를 통해 그녀가 여성들이 입고 있는 옷을 꼼꼼하게 관찰했음을 알 수 있다. 테일러는 하층 계급의 어머니들은 마치 항상 애를 키우고 있는 것처럼 가슴을 드러낸 짧은 저고리를 입고 있다고 말한다. 서양인들 중에는 여성의 이런 모습을 한국 여성의 모습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가인 테일러는 이 모습을 그림으로 남기진 않았다.

한국인들의 옷 색깔은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흰색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34) 테일러, 앞의 책, 169쪽.

양반 계층 여성인 경우에는 색깔이 있는 한복을 입었고, 심지어 양반집 어린 하녀도 색깔 있는 옷을 평상시에도 입었다.

흰 옷을 차려 입은 많은 여성들이 책을 보자기로 써서 그들의 허리 앞쪽에 동여매거나 혹은 등에 매어 가져오고, 어린아이들이 색동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는 것 보다 더 매력적인 광경은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것이다. (...) 부유한 계층의 젊은 여자 몇몇은 수녀 같은 두건을 쓰고 머리에서 발까지 번쩍이는 흰 비단 옷을 입고 하얀 모피 줄이 들어간 작고 감직한 소매 없는 조끼를 입고 있어 꽤 매력적으로 보인다. 모피는 조끼의 모든 가장자리와 옷의 진동 바깥 둘레에 달려 있다.¹³⁵⁾

테일러는 거리에서 양반집 어린 하녀들이 노란색이나 녹색의 짧은 윗도리와 풍성한 주홍색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¹³⁶⁾ 이러한 모습은 1910년 한국을 방문한 캠프의 기록에서도 보인다. 평양의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양반 계층 여성들이 입고 있는 의복의 모습이다. 테일러의 기록에서 본 것처럼 캠프 역시 양반 계층 여성의 옷은 색상이 다양하고 비단 소재의 옷과 모피가 들어간 조끼를 입고 있었다 한다. 테일러와 캠프 두 화가의 눈에는 여성들의 옷이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 특히 양반층 여성들의 모습은 쉽게 볼 수 없었는데 거리에서,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반층 여성들의 외출이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외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테일러의 기록은 다른 서양 여성들이 언급한 것과는 다르다. 앞서 여성의 외출 시간에 대해서도 비숍과 달리 이전 없어진 관습이라고 말한 것처럼 테일러의 관찰이 서울에서 실제 그들과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본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어서 실제 모습에 더 가깝다고 여겨진다.

서양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거리에서 본 한국 여성의 모습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 장옷을 덮어 쓴 신비로운 인물로 나타난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내외법(內外法)으로 부녀자들은 외출할 때 내외용 쓰개를 사용하였다. 내외용 쓰개는 쓰개치마, 장옷, 처네, 샷갓이 있었다. 장옷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135) 캠프, 앞의 책, 40쪽.

136) 테일러, 앞의 책, 112쪽.

여자들은 집을 나갈 때 긴 장옷을 써서 몸을 가리며, 아주 가난한 입 여자들은 그냥 다니기도 한다. 서울에서는 대개 초록색의 비단 소재 망토를 걸친다. 실제로 이것은 소매 달린 외투 모양의 옷으로, 소매를 축 늘어뜨린 채 머리에 덮어 쓴다.¹³⁷⁾

테일러는 가난한 집 여성들은 얼굴 모습을 가리기 위해 장옷을 걸치지 않고 그냥 다녔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몸을 가리기 위해 장옷을 걸쳤다. 장옷의 재질은 명주였지만 서울에서는 비단을 사용한 여성들의 모습도 보였다. 캠프의 기록을 보면 서울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 고궁을 방문했다. 고궁은 저렴한 입장료를 받고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방문객들은 경건한 복장을 해야 하는 관람 규칙이 있었다. 그곳에서 캠프는 고궁을 구경하러 온 여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많은 아낙네들이 진홍빛의 리본이 달린, 사과나 상추 잎같이 현란한 소매 없는 푸른 외투를 쓰고 있다. 이 외투는 머리 꼭대기부터 무릎 아래까지 늘어져 있다. 이 기묘한 의복은 부인네들이 거리에서 얼굴을 감추기 위해 쓰곤 했다.¹³⁸⁾

캠프나 테일러의 기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궁에서 본 여성들은 장옷을 걸치고 있었다. 장옷은 겹감인 경우 녹색을 많이 사용했고, 안감은 백색을 사용하였다. 캠프인 경우 테일러와는 달리 소매 없는 외투를 봤는데 이는 쓰개치마를 본 것으로 여겨진다.

몇몇 소녀들은 장소를 차지하는 모자를 쓴다. 모자는 우산보다 훨씬 크고 두 손으로 운반하며, 앞쪽에는 머리에서 시작하여 뒤쪽으로는 오금까지 내려간다. 이 모자는 이 지역의 독특한 모습인데 이것은 햇볕이나 비를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천한 남성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쓴다.¹³⁹⁾

캠프가 평양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 본 소녀들의 모습이다.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모자를 쓴 모습이 보이는데 여성들의 모자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위한 방

137) 테일러, 앞의 책, 169쪽.

138) 캠프, 앞의 책, 56쪽.

139) 캠프, 앞의 책, 40쪽.

편이었다. 캠프의 모자에 대한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의 모자는 햇빛을 피하는데도 필요했지만 친한 남성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었다. 남자들이 쓰는 모자처럼 머리위에 걸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무릎까지 내려오고 폭도 넓어 온 몸을 감싸는 모자였다. 이와 비슷한 경험은 다른 여성들에게서도 보인다. 비숍은 덕천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한국 여성들이 유별나게 큰 모자를 쓴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모자의 길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감쌌다고 한다.¹⁴⁰⁾

테일러는 여행 중 평양을 방문 했을 때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한 여성들을 만나는데, 그들은 둘레가 3.6m 쯤 되는 짚으로 만든 둥근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가 커서 길을 걷는 사람들 간의 충돌이 많았다고 했다.¹⁴¹⁾ 비숍과 테일러와 캠프가 방문한 평양이나 덕천은 북쪽지방이었는데, 당시 쓰개의 종류로 모자를 사용하는 지방은 북쪽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교육과 종교 활동이 끼친 영향

개항과 더불어 서구의 신지식을 교육하기 위한 근대식 교육기관들이 설립되기 시작한다. 최초의 사립학교는 1883년 원산 지역사람들의 자비로 세운 원산학사이다.¹⁴²⁾ 조정에서 운영하는 통역관 양성을 위한 최초의 관립학교인 동문학도 이시기에 세워졌으며, 1886년 고종에 의해 설립된 관립학교인 육영공원은 양반가 자제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었다. 새로운 교육기관이 세워지고 교육 내용이 바뀌고 있었지만 여성을 위한 교육은 여전히 열악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 최초의 시도는 교육 선교사들에 의해서이다.

140) 비숍, 앞의 책, 335쪽.

141) 테일러, 앞의 책, 205쪽.

142) 원산은 당시 부산, 인천과 더불어 3대 개항지 중 한 곳이다. 서양 문물이 가장 빨리 들어오는 곳인 만큼 이에 맞춰 젊은 신지식인을 키우기 위해 지역민들은 자발적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학교를 세우고 외국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가르쳤다. 이곳에서는 외국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통(수학, 물리, 농업 등) 및 특수과목 등(경의, 병서, 외국어, 법률, 지리 등)을 가르쳤다. 학사 규정 및 교칙을 마련하는 등 근대학교로서의 교육시스템을 갖추었다.

1) 교육의 영향

비숍은 한국에는 소녀들을 위한 학교가 없다고 말한다. 상류층 여성인 경우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소녀들을 위한 토착적인 학교는 없다. 비록 상류 계급의 여성들이 한글을 배운다고 해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1,000명 중에 2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¹⁴³⁾

한국의 모든 여성들은 세 가지 행동 원칙을 배워야만 하는데, 첫째는 부모 섬기는 법이며, 둘째는 자식 키우는 일이며, 셋째는 가사를 돌보는 일이었다. 서양 여성들의 사고에 따르면 이러한 지식을 익히는 것은 고급 직업에 대한 기초로서 필수적인 교양 교육을 의미하지만, 한국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남자들은 자기의 아내들이 읽고 쓰는 능력조차도 불필요하다고 여긴다.(...) 어릴 때부터 그들은 지적으로나 지위 그리고 능력에 남자들보다 열등하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남자들은 그들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할 때부터 매일같이 남존여비의 사상을 배운다.¹⁴⁴⁾

1904년 입국하여 송도에 파견된 선교사 와그너는 최초의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¹⁴⁵⁾ 생긴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여성들 교육의 대부분이 가정교육에 머물러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그들은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키우며, 가사를 돌보는 일을 가정에서 배운다. 양반 계층 여성들은 가정교육과 더불어 유교적 윤리도덕 및 언어와 행동에 관한 내훈서 및 『삼강행실도』 등이 그들의 교과서였다.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열등하다고 교육을 받고,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우월하다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심지어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비숍은 남성들이 서당에서 배우는 교육방법에 대해 서당에서 한자를 쓰고 중

143) 비숍, 앞의 책, 333쪽.

144) 와그너, 앞의 책, 31쪽.

145) 이화 학당은 1886년 미국인 선교사 매리 스크랜튼에 의해 문을 열었다. 선교사들도 아니고 국가 기구에서도 아닌 시민 사회 주도의 최초의 여성 교육 기관은 1906년 도산 안창호를 비롯한 조선인에 의한 사립 민간 교육기관으로 진명학교가 설립되었다. 국가 기관에서 세운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은 2년 뒤 1908년 설립한 관립 한성고등학교이다.

국의 고전을 읽고 암송하는 것은 사고력이나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며 애국자나 사상가, 정직한 사람을 배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는 풍조를 낳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¹⁴⁶⁾

최근 몇 년 전까지도 한국에는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없었으나,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온 이후 소년들뿐 아니라 소녀들을 위한 학교가 한국의 전역에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여성을 격리시키는 오래된 한국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곳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딸을 교육시키려고 생각하지 않았다.¹⁴⁷⁾

여성의 초기 사회진출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 중 한 가지는 서양 개신교 여성선교사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이다.¹⁴⁸⁾ 개신교 선교사들은 한국의 교육 실상을 보고 여성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특히 여성 선교사들은 한국 여성들의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식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여성들을 위해 학교를 세운다. 하지만 한국의 어머니들은 그곳에조차 딸을 보내는 것을 꺼려했다. 여성 교육 선교사의 활동에서 전술했듯이 외국인들에게 자신의 딸을 맡기는 것은 어머니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겼다.

와그너가 처음 부임한 곳은 송도였다. 교육 선교사로 입국한 와그너는 여자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관이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송도는 고려시대 수도였던 곳으로 그곳 사람들의 자부심은 강했다.¹⁴⁹⁾ 그렇지만 교육은 아직 구시대에 머물러 있었다. 대도시는 남녀 모두를 위한 근대적 학교가 세워지고 있었지만¹⁵⁰⁾ 농촌은 배움을 위한 학교기관이 거의 없었다. 여행가 캠프의 경험에 의하면 그녀가

146) 비숍, 앞의 책, 370쪽.

147) 와그너, 앞의 책, 53쪽.

14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4, 탐구당, 2003, 378쪽.

149) 언더우드는 송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송도는 서울에서 약 55마일 떨어진 곳으로 약 2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그 도시는 첫눈에 유망하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송도는 조선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아마도 조선에서는 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일 것이다. 여기에서 인삼이 재배되는데, 인삼은 조선, 청국 그리고 일본에서 아주 높이 평가되는 것이며, 1파운드 당 45달러로 금보다 더 높은 가격인 최상급으로 팔린다.”(언더우드, 앞의 책, 72쪽)

150) 도시에 세워진 여성들을 위한 학교는 1886년 서울에 이화 학당이 설립된 이후 1889년 정신여 학교, 1898년 배화 학교, 1903년 평양의 승의여학교 등의 기독교 계통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종교와 상관없이 순수한 조선인 사립학교는 1906년 숙명여학교와 진명여학교가 설립되었고, 1908년 동덕여학교가 설립되었다. 공립여학교로는 1908년 한성고등여학교가 설립되었다.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282쪽.)

서울을 떠나 8일 동안 지방 여러 곳을 여행 하면서 단 한 개의 학교만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와그너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의 변화가 송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송도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딸들에게 근대교육의 혜택을 주고 싶어 했다. 그들은 한국인 교사의 월급을 자신들이 부역할 테니 여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선교사에게 탄원했다.¹⁵¹⁾ 남존여비의 사고를 가지고 아들 교육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그들은 이제 딸들에게도 신교육의 혜택을 주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송도 최초의 여학교인 개성여학당이¹⁵²⁾ 문을 열면서 송도의 딸들은 남자 형제들처럼 정식적인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받길 원했고, 그 방법 중 하나로 교과목에 한문을 넣길 원했다.¹⁵³⁾ 이는 당시 여학생들이 남녀동등과 교육기회의 평등을 요구하는 바람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도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을 위한 교육 기관이 서울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방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세워지고 있었다. 또한 1880년대 초반 한국인들은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딸을 보내길 원하지 않았지만, 1900년대에는 딸의 교육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이 세운 학교에 보내는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양반 계급을 제외한 평민의 집안에서는 경제적인 여건상 딸의 교육은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교육선교의 영향으로 여성교육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 교육을 위한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과 더불어 개화 선각자들에 의한 움직임도 있었다. 1896년 창간된 <<독립신문>>은 민력과 국력 양성 차원에서 여성교육과 여성 사회참여를 주장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혜가 있는

151) 김성은, 「한말 일제시기 엘라수 와그너(Ellasue C. Wagner)의 한국여성교육과 사회복지사업」, 『한국기독교와 역사』(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2014), 127쪽.

152) 1906년 문을 연 '개성여학당'은 개성 지역의 여학생을 위한 최초의 학당으로, 23명의 여학생이 조그만 초가에서 기숙하며 지냈는데 개교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입학할 희망하는 학생수가 학교의 시설과 규모를 훨씬 넘을 정도로 증가하였다. 와그너는 산수와 노래를 가르쳤다. 이 학교는 그 후 두을라(杜乙羅)학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1922년에는 호수돈여고보로 승격한다.

153) 김성은, 「한말 일제시기 엘라수 와그너(Ellasue C. Wagner)의 한국여성교육과 사회복지사업」, 『한국 기독교와 역사』, 한국 기독교역사연구소, 2014, 128쪽. 와그너는 여학교가 한국 여성들에게 남녀 평등한 교육기회, 여성도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학생은 변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장이 되기를 원했다.

부인들도 국사에 참여하여 정치를 진보케 할 수 있고, 둘째 부부간에 가사를 서로 의논하여 가정이 잘 되기를 이끌고, 셋째 열 살 이하의 자녀교육은 어머니가 담당하여 자녀의 좋은 스승이 되는 것 등이다.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이는 서울 북촌 양반부인들의 호응을 얻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을 발표하게 된다.¹⁵⁴⁾ 이런 양반층 여성들의 변화는 개신교 선교에 의해 변화하고 있는 서민층 여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여성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상에서 개신교 여성선교사들의 교육 선교가 한국 여성 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감리교 출신인 와그너는 선교의 방법을 교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의식 계몽을 선교 방법으로 택했다. 그녀의 주 선교 대상은 서민층과 여성이었다. 초창기부터 여성들은 개신교의 선교 대상자였다. 이와 같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영향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미 한국 사회에도 동학사상이나 개화사상과 같은 근대적 사상이 생성되어 발전되었고, 서울 북촌을 중심으로 한 양반층 여성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도 있었다. 이는 여성의 개화를 위한 움직임들과 함께 선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한말 여성들의 의식 개혁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

2) 종교의 영향

유교가 사회의 규범으로 영향을 끼쳤던 시기 한국을 방문한 서양 여성들은 한국인의 종교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불교, 유교 그리고 도교가 이 나라를 지배했지만, 점차 그들이 한때나마 가졌던 영향력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다.¹⁵⁵⁾

한국에는 종교가 없다. 유교는 공식적인 의식이며 공자의 교훈은 조선 사람의 도덕적 규범이다. 한때 성행했으나 3세기 전의 국교에서 폐지된 불교는 주로 산악지대나 대

15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4, 탐구당, 2003, 379쪽.

155) 언더우드 부인, 앞의 책, 32쪽.

로로부터 먼 곳에서 만나게 된다. 156)

언더우드 부인은 한국인들의 윤리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유교와 한때 영향력을 가졌던 불교 등에 대해 거의 사라져 가고 있으며 대개의 사람들은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비숍은 유교는 의식일 뿐 한국인의 종교로 인정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에 있는 이교도적 우상을 섬기는 장엄한 사찰을 한국에서 보지 못한 몇몇의 여행자들은 한국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¹⁵⁷⁾

한국인의 종교 유무에 대한 와그너의 생각은 이들과는 달랐다. 기독교 사상을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 온 서양 여성들은 유교, 불교, 무속과 같은 한국인의 종교 모습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와그너는 장엄한 사찰과 같은 건물이 없다고 종교가 없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의 경솔함을 지적하고 있다.

샤머니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정령 숭배의식은 왕실과 무지한 대중과 완전한 억압 속에 사는 모든 계급의 여인들에게 널리 유행한다.¹⁵⁸⁾

한국의 원래 종교는 악령들을 숭배하는 무속이었다. 무속이 처음에는 유교로 대치되고 다음에는 불교로 대치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무속은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불교, 유교와 함께 나란히 지켜진다.¹⁵⁹⁾

서양 여성들이 목격한 한국인의 종교 모습 중 무속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비숍은 모든 계층을 무시하고 억압 속에 사는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종교적 형태의 모습은 정령숭배의식이라고 한다. 캠프 역시 무속은 한국인의 종교이며,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 있다고 한다. 여행객인 비숍, 테일러는 오랫동안

156) 비숍, 앞의 책, 31쪽.

157) 와그너, 앞의 책, 39쪽.

158) 비숍, 앞의 책, 32쪽.

159) 캠프, 앞의 책, 35쪽.

동안 체류하면서 주변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걷다가 무당이 내는 북소리를 듣는다거나 무당이 춤을 추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곤 했다. 그들은 무속은 한국 여성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는 종교로 여겨진다고 한다.

논리의 단순한 철학 체계인 유교는 조상 숭배를 요구하는 원칙 때문에 사람들을 강하게 끌고 있다. 아주 사소한 규칙에 관한 것이라도 격식을 차려 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성나고 무시된 영혼의 분노로 무서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여자든 남자든 그 사람은 가장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반역자 이상으로 취급된다.¹⁶⁰⁾

유교는 수세기 전 한국에 소개되어, 그 철학은 조상 숭배와 중국의 고전을 사랑하는 선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¹⁶¹⁾

교육받은 한국인들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조상의 숭배이다. 대가의 선산에는 2-3세대의 조상의 비명을 모신 집들을 볼 수 있다.¹⁶²⁾

언더우드 부인과 와그너, 캠프의 유교에 대한 생각이다. 그들은 유교가 조상 숭배의 의식임을 인식하고 있다. 선교로 파견된 언더우드 부인과 와그너는 유교가 종교가 아닌 철학이며 祭儀의 한 형태로 파악했다고 볼 수 있다. 언더우드 부인은 유교가 비록 종교가 아니라 조상을 숭배하는 의식으로 보이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무서운 재앙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신성시 한다고 했다. 무속이 여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있는 것과는 달리 유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은 중국의 고전을 사랑하는 선비와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겼다.

불교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승려들이 도성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그들의 사회적 서열은 조선에서 가장 하층계급인 백정 다음이다. 정부 보조금

160) 언더우드 부인, 앞의 책, 32-33쪽.

161) 와그너, 앞의 책, 39쪽.

162) 캠프, 앞의 책, 35쪽.

이나 기부금으로 유지되는 몇 개의 절이 있으며, 여자와 어린이들, 그리고 특히 무지한 사람들은 아직도 어느 정도 불교를 숭배하고 믿는다.¹⁶³⁾

현재 한국에서 불교에 대한 평판은 좋지 않다. 불교의 수도 사원과 절의 수는 여전히 많지만, 절은 푸대접을 받고 수도 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소홀하다. 스님과 비구니들은 전국 곳곳을 다니며 구걸을 하는데, 이들에게 시주하는 것을 거절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는 시주를 받는 사람의 종교적 인품에 대한 존경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는 사람들의 친절한 성품 때문이다.¹⁶⁴⁾

그들이 불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선교 활동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언더우드 부인은 승려들에 대해 그들은 성안에도 들어올 수 없으며, 백정보다 더 낮은 계층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보았다. 불교를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여자, 어린이,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여행가인 테일러는 불교에 대한 평판은 좋지 않고 승려들에게 시주를 주는 것은 승려의 인품에 대한 존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는 사람들의 친절한 성품 때문이라고 인지한다. 조선 시대 불교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고 승려들의 지위가 낮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언더우드 부인과 테일러는 지나칠 정도로 불교와 승려들의 인품을 격하시키고 있다. 이는 당시 한국을 방문한 서양인들이 그들의 종교인 기독교 이외의 다른 민족의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아주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더우드 부인의 경우 기독교의 선교 대상자들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인 여성, 어린이, 무지한 사람들은 같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하찮은 존재처럼 취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1880년대 이후 서양 선교사들의 입국과 더불어 들어온 기독교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선교사들의 선교 방법의 차이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특히 여성들에게 끼친 영향은 남성들보다 훨씬 컸다. 선교사로 한국에 상주한 언더우드 부인은 남편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선교 활동에 나선다. 지방을 방문할 때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여인들이 반가움에 모여 들었고, 시간이 짧아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 작별할 때면 울면서 먼 길까지 따라왔다.¹⁶⁵⁾ 특히 시골 작은 마을일수록 그들을 반겨주는 여성들은 더욱 많았다.¹⁶⁶⁾

163) 언더우드 부인, 앞의 책, 33쪽.

164) 테일러, 앞의 책, 182쪽.

165) 언더우드, 앞의 책, 258쪽.

현재 한국의 항구 지역과 내륙의 큰 도시 거의 모든 곳에 장로교 예배당이 있다. 북
음 선교협회는 성공회 초대 주교인 코프주교를 수장으로 하여 서울, 제물포, 강화도를
기점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다.¹⁶⁷⁾

1894년 입국한 테일러는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10여 년이 지난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개항장과 큰 도시에는 개신교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
었고 성공회 역시 이들 지역을 기점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개항장과 큰 도시에는 외국의 공관들과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주변에 살
고 있는 한국인들은 서양인과 서양 문물을 일찍 접하다보니 타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 개방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 진다.

여행가이지만 한국에서의 서양 종교의 파급효과를 보고 싶어 했던 캠프는 평
양을 방문하는 일정 중 일요일 예배 현장을 보기 위해 여자들의 강습회를 방문
한다. 평양은 1894년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지으
면서 선교활동을 시작했던 도시이다. 16년 후 그곳을 방문한 캠프는 교회의 숫자
가 시내에는 4개, 주위의 지역에 35개가 있고, 많은 신도들이 모여든다는 소식을
접한다. 캠프는 이런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일요일 오전 10시경 집을 나서 여자
들의 강습소를 방문했다.

큰 방에 약 500여 명의 여자들과 거의 같은 수의 어린아이들이 있었다. 한국의 교회
와 학교의 문 앞에서 처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신발이다. 모든 방문객은 들어가기 전
에 신발을 잘 벗어 놓는다. 바닥에는 자리가 깔려 있으며 모두 가부좌를 하고 앉는
다.¹⁶⁸⁾

오르간 앞에는 예쁜 소녀가 앉아 연주를 하고 있고, 각 학급들이 마루에 둥글게 앉아
있고 여자 선생님들이 각각 중앙에 있었다. 아이들은 온 정신을 쏟아 선생님을 바라
보고 있으며 선생님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¹⁶⁹⁾

166) 언더우드, 앞의 책, 259쪽.

167) 테일러, 앞의 책, 144쪽.

168) 캠프, 앞의 책, 39쪽.

169) 캠프, 앞의 책, 40쪽.

우리가 평양에 도착하기 직전에 여자들을 위한 2주일간의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500명 이상이 참석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은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 아주 먼 거리를 걸어 왔다. 중앙 교회의 아침 학교의 학생은 500-600명이 되었다. 그래서 남녀가 함께 예배를 보는 오후에는 1,500~1,700명이 참석하여 교회는 넘칠 듯이 가득 찬다.¹⁷⁰⁾

캠프는 어린이들이 교리를 받기 위해 참석한 인원이 여성 신도 숫자와 같다고 한다. 이는 기독교가 여성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퍼져 있음을 알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2주일간의 성경공부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교회에 참석한 여학생들의 모습과 남녀가 함께 예배를 보는 모습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이었다. 비록 교회라는 종교적 공간에서의 모습이긴 하지만 남녀유별의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그들은 함께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또한 기독교가 일반 대중 사이에 많이 보편화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는 선교사들이 주로 선교 대상으로 삼았던 서민층 여성들만의 모습이랄 수도 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양반 자녀라고 여겨지는 어린이들도 있는 걸 보면 꼭 서민층만의 종교적 변화라 단정할 수는 없다.

캠프는 평양의 조그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입구에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이라든가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으려는 열의가 있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는다. 이는 서양인들이 기록 속에서 봤던 무례하고 무지한 한국인의 모습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이었다. 캠프는 정식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서민층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고 이는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독교가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즉 캠프는 여성들이 배움에 대한 소질과 함께 교육열이 높으며, 심지어 1년 동안에 마태복음을 제외한 신약성서 전부를 외워버린 여학생 2명이 있었는데 이는 서양 어떤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라 극찬했다.

170) 캠프, 앞의 책, 41쪽.

한국의 여성은 이름이 없다. 어렸을 때는 가족 내에서 사용하는 유아의 이름을 가진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아무개의 동생, 아무개의 딸이라고 부른다. 결혼 후 그녀는 아들을 낳아서 아무개의 어머니라고 불릴 때까지도 이름이 없다.¹⁷¹⁾

한국의 여성들은 이름이 없다는 이상한 결핍증으로 상처를 입는다. 여자들은 애칭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이름은 없다. 종종 여자는 그의 남편의 이름조차 모른다. 만약 그녀가 기독교인이어서 세례명을 받으면 이것은 여자의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그에게 줄 것이다.¹⁷²⁾

와그너와 캠프가 본 것처럼 한국의 여성들에게는 이름 석자가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누구의 그녀로만 불렀다. 자신의 이름이 없기 때문인지 그녀들은 남편의 이름에도 관심이 없어 남편의 이름을 모르는 여성들도 있다. 캠프는 개신교가 한국의 여성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된 계기는 이름조차 없었던 그들이 세례명을 받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해주는 동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라 한다.

소녀들 중 하나는 영국식 악수가 완전히 몸에 배어서 내가 문을 닫으려고 손을 뺐을 때 놀랍게도 그가 나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는 것을 보고 나는 몹시 놀랐다. 우리가 출발할 무렵 아름다운 어린 소녀가 아주 자랑스럽게 그녀의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나는 그가 한글을 아주 잘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¹⁷³⁾

이제 여성들은 남성을 비롯한 타인과 거리낌 없이 상대하고 있었고, 한글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낯선 외국 여성과도 자연스럽게 악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여행가인 캠프가 한국을 비롯한 극동 아시아를 방문하게 된 이유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고 서양의 종교가 한국에 끼친 영향력을 보고 싶어서였다. 그 변화를 보기 위해 8일 간의 짧은 여행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방문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같은 그녀의 행동으로 볼 때 거리에서 만난 여성과 성격을 외운 소녀의 모습과 같은 여성의 변화

171) 와그너, 앞의 책, 34쪽.

172) 캠프, 앞의 책, 40쪽.

173) 캠프, 앞의 책, 84쪽.

는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했다.

이상으로 교육과 종교생활이 여성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말 이후 한국에 상주하기 시작한 선교사들이 한국 여성들에게 끼친 영향 중 가장 커다란 것은 여성들이 공식 교육기관을 통해 근대식 교육을 접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데 있다.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 내 역할을 중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활동으로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게다가 개신교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존엄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IV. 맺음말

개항과 더불어 외국에 문을 연 한국은 1882년 한·미 수호조약을 시작으로 합법적으로 서양인의 입국과 상주를 허용한다. 초창기 외교관 및 정부 고용고문관들의 상주는 이후 일반인들에게까지 허용함에 따라 선교사, 여행가, 상인, 학자, 기자 등 단기 체류자들의 입국이 이어진다. 그들 가운데는 한국을 경험한 일기, 여행기 혹은 선교 활동에 관한 기록들을 남긴 서양인들이 꽤 있다. 서양 남성들의 기록물 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서양 여성들이 남긴 기록도 있다.

본 논고는 한말 서양 여성들이 남긴 저술을 통해 한국 여성에 대한 서양 여성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서양 여성들이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대부분 여행이거나 선교활동이었다. 그들이 남긴 저술 속에는 한국의 정치, 역사, 문화, 생활풍속, 그리고 여성의 생활등을 소개하고 있다. 남성들의 기록들도 많지만 여성들의 기록에 주목한 이유는 그들이 한국 여성들을 남성들보다 쉽게 만날 수 있음으로 인해 삶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는 이점으로 보다 사실적인 여성들의 모습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을 위하여 II장에서는 첫째, 서양인들의 한국 체류 배경과 그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창기 한국에 상주한 서양인들은 정부가 공식으로 초청한 외교관이거나 정부 고용인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이 외국과의 외교와 선진기술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일반인들의 입국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선교사들과 사업가 여행가 등이 입국하게 된다. 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로 포장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하고 이후 한국의 의료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상인들의 입국으로 한국 최초의 전기와 전차가 들어오게 된다.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서양인들은 자유롭게 국내를 다니면서 만나게 되는 한국인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집단이다. 서양인들의 체류는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둘째, 서양 여성들의 체류와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양한 분야의 서양 남성들의 입국과는 달리 서양 여성인 경우 대부분 여행가이거나 선교 활동을 위한 선교사였다. 여성 여행가들은 영국 출신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본국에서는 여행가로

화가로 이미 알려진 유명인들이었다. 영국의 중산층인 그들은 경제적인 여유와 개인의 욕망을 위해 바다 건너 먼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서양 여성들이었다. 그들의 한국 여행의 목적은 급변하는 극동아시아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싶은 여행가다운 호기심이었다. 여성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입국한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다. 그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중산층 여성들이었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선교의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장로교는 교리를 중심으로, 감리교는 교육과 의료를 통한 의식 계몽을 선교 방법으로 한국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주된 선교 대상 중 하나는 여성이었다. 그들의 의료와 교육 선교 사업으로 여성을 위한 병원과 여성만을 위한 학교가 세워졌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손탁과 같은 사업가는 호텔을 운영하기도 했다.

셋째, 서양 여성들의 한국 관련 저술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술이 발간된 순으로 5명의 여성 저자와 기록을 보면 ①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② 언더우드 부인의 『상투의 나라』, ③ 테일러의 『스코틀랜드 여성 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과 ④ 와그너의 『한국의 아동 생활』, ⑤ 캠프의 『조선의 모습』이다. 5명의 여성은 국가와 방문 목적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기독교 집안 출신이며 자국의 중산층 여성들이었다. ① 비숍인 경우 한국 방문 당시 63세의 나이였고 이미 여행가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던 영국여성이다. 그녀는 1894년부터 1897년 사이 네 차례 한국을 방문한다. 그녀의 기록은 국내 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 한인들의 모습까지 담고 있는 특징이 있다. ② 언더우드 부인은 그녀의 남편 언더우드와 함께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에서 보낸 미국출신의 선교사였다. 그녀는 을미사변때 까지 명성황후의 侍醫였고, 갑신정변, 청일전쟁, 을미사변, 아관파천과 같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남편과 함께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한 여성이다. ③ 테일러는 화가이자 여행가이다. 그녀 역시 비숍처럼 1894년 입국하여 서울에 집을 마련해 살면서 송도와 평양을 오고 갔다. 테일러는 주변의 사람들과 거리를 산책하기를 좋아했고 거리의 풍광과 인물 그리고 의복에 관심이 많았다. ④ 와그너는 송도에서 교육 선교 역할을 했던 미국 여성이다. 그녀는 특히 한국의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송도 최초의 여학생을 위한 개성여학당을 세우기도 했다. ⑤ 캠프는 8일 동안의 가장 짧은 기간 체류했던 영국 화가이자 여행가였다. 1910년 극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정세를 직접 확인하고, 기독교의 영향을 한국에서 보고 싶어 방문했던 여행가였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서양 여성들의 방문과 그들이 남긴 저술을 바탕으로 한국 여성들의 모습을 살펴 보았다. 그 중 혼인과 가사노동, 주거공간과 복식을 통해 살펴 본 그들의 폐쇄성과 교육과 종교 활동이 여성 생활에 끼친 영향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범위로 하여 5명의 서양 여성들이 인식한 한국 여성 생활에 대해 살펴 보았다.

첫째, 혼인과 관련해서는 조혼, 축첩, 과부의 再嫁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았다. 조혼에 대해서 언급한 비숍, 테일러, 와그너는 입국 당시 독신이었다. 그들은 어린 소녀들이 부모가 정해준 남성과 결혼하는 혼인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축첩과 再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비숍은 축첩은 사회적 관습으로 인정되고 있었지만 존경받지는 못하는 행위이며, 과부의 再嫁는 법으로는 인정하고 있지만 양반층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해 허용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조혼 방지법과 축첩을 허락하지 않으며, 과부의 再嫁가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지 못했던 한말 한국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여성의 주거 공간인 안채와 외출 시 内外法에 따라 머리에 걸쳤던 장옷과 같은 여성들의 복식 규제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와 남성들의 공간인 사랑채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공간적인 폐쇄를 가져왔다. 사랑채가 없는 가옥구조에 살고 있는 중류층과 낮은 계급의 여성들은 상류층 여성들보다 타인에 대해 자유로웠다. 여성의 외출 시 반드시 머리에 써야 하는 장옷과 같은 가리개 역시 여성을 규제하려는 服飾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한국 여성들 스스로는 이러한 규제가 자신을 위협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서양 여성들의 자유를 남편이 방치하고 있다고 여겼다. 한편 1910년 입국한 캠프는 길거리에서 타인에게 말을 걸고 악수를 청하는 여성들과 소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여성들의 집 밖 외출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선교사들이 세운 여성을 위한 학교는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키우며, 가사 돌보는 일만을 교육 받았던 여성들에게 한글을 비롯해 공부를 가르치고 가정의 역할에서 사회활동으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여성들을 배출했다. 송도에 파

견된 와그너는 송도의 아버지들이 남성들에게만 허락되었던 학교 교육을 딸들에게도 기회를 주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딸들 역시 남성들과 동등하고자 하는 의지로 여성들의 배움이 아니었던 한문을 공부하고자 했다. 이는 개신교의 영향으로 서민층 여성들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에 대해서 캠프는 평양의 한 교회에서 여학생이 성경을 전부 암송하고, 선생님이 되어 남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동안 여성들은 무속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기독교를 통해 한글로 된 성경을 읽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남을 가르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이상으로 한말 서양 여성들의 저술 속에 나타난 한국 여성 생활의 면면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들은 세계 최강의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중산층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의 집밖 외출조차 허락되지 않던 한국의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 바다건너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혼자의 몸으로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그들의 의식구조는 한국 여성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고 체계를 갖춘 여성들이었다 할 수 있다. 시작부터 다른 출발점이지만 그런 만큼 그들이 인식하는 한국 여성들에 대한 관점이 때론 한국 여성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욱 비관적으로 바라본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객관적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 간에도 한국 여성들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모습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서양 여성 여행가들은 한국 여성들의 상황을 한국적인 상황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반면, 선교사들은 그들의 선교 대상인 여성들에게만 가해지는 불합리한 사회적 관습에 대해 용인하지 못하고 그들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에 옮겼다고 볼 수 있다.

서양 여성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던 부류는 한국의 서민층 여성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이 목격한 여성들의 모습이 한국 전체 여성들의 모습이라는 보편성을 갖진 못하겠지만 그것 또한 한국 여성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서양 여성들과의 부딪힘과 만남으로 서민층 여성들은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빠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근대식 교육을 통해 무지에서 벗어나게 되고 남녀가 함께하는 생활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그들의 관심을 가정에서 사회로 돌리게 하였다.

여행가로 또는 선교사로 향한 목적이 다르지만 그들이 본 한국 여성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들인 경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그들의 기록이 신빙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짧은 여행기간과 방문하기 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일본이나 중국에서 나온 서적들을 통해 접했을 경우 왜곡되게 기록한 경우도 있다. 나아가 서양 여성이 만날 수 있었던 한국 여성이 제한적이었음을 고려할 때 서양 여성이 한국 여성에 대한 인식은 단편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은 많은 자료의 발굴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기본자료

Lillias H. Underwood,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or Life in Korea”, American Tract Society, Boston 1904. (릴리아스 H. 언더우드 지음, 신복룡 역주, 『상투의 나라』, 집문당, 2010)

Isabella Bird Bishop, “Korea and Her Neighbors”, Fleming H. Revell Co., New York, 1897. (이사벨라 B. 비숍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1999).

Constance J. D. Tayler, “Korea at Home : The Impressions of A Scotswoman”, Cassell and Company, Limited, London, 1904. (콘스탄스 J. D.테일러 지음, 황혜조 역, 『스코틀랜드 여성 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일상』, 살림, 2013).

Ellasue Wagner, “Children of Korea”, Oliphants Ltd., London, 1911. (E. 와그너 지음, 신복룡 역주, 『한국의 아동 생활』, 집문당, 1999).

E. G. Kemp, F. R. S. G. S, “The Face of Korea”, Duffield & Company, New York, 1911. (E. G. 캠프 지음, 신복룡 역주, 『조선의 모습』, 집문당, 1999).

2. 단행본

강명관, 『그림으로 읽는 조선 여성의 역사』, Humanist, 2012.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양인이 쓴 민속 문헌 해제』, 2007.

고영자 편역, 『서양인들이 남긴 제주건문록(1845~1926)』, 제주시우당도서관, 2013.

국립민속박물관, 『코리아 스케치』, 국립민속박물관, 2002.

국립민속박물관, 『파란 눈에 비친 100년 전의 한국 코리아스케치』, 신유문화사, 2002.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44, 탐구당, 2003.
- 끌라르 보티에· 이쁘리트 프랑탱, 김상희·김성연 옮김,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
화기 조선』, 2002.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1884~1910)-선교사들의 중산층적 성격을 중심
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박대현, 『서양인이 본 조선: 조선관계 서양서지』, 호산방, 1996.
- 박지향, 『일그러진 근대』, 푸른역사, 2003.
- 사라에반스, 『자유를 위한 탄생 : 미국 여성의 역사』, 조지형 역, 이화여자대학
교출판부, 1998.
- 샤를르달레 저, 안응렬·최석우 공역, 『한국천주교회사상』, 한국교회사 연구소,
1990.
- 서울특별시편찬위원회, 『서울 六百年』 제1권, 3권, 서울특별시, 1979.
- 안동대학교박물관, 『사진으로 보는 조선 1892년』, 성심인쇄소, 1997.
- 에른스트폰헤세-바르텍, 정현규 옮김, 『조선, 1894년 여름』, 책과함께, 2012.
- 엘리자베스 키스·엘스패트 K. 로버트슨 스콧, 송영달 옮김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 1920~1940』, 책과 함께, 2006.
- 엘리자베스 키스, 송영달 옮김, 『키스 | 동양의 창을 열다』, 책과 함께, 2012.
- 이순우, 『손탁일기』, 하늘재, 2012.
- 이영석, 『역사가가 그린 근대의 풍경』, 푸른역사, 2003.
- 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 : 신분 상승과 가부장제 문화』, 한울, 2003.
- 정성화 · 로버트네프, 『서양인의 조선살이, 1882- 1910』, 푸른역사, 2008.
- 조현범, 『문명과 야만-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 책세상, 2002.
- 최재인, 『서양 여성들, 근대를 달리다』, 푸른역사, 2011.
-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생활사 2』, 역사비평사, 2002.
- H. N.알렌, 김원모 역, 『알렌의 일기』,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4.

3. 논문

- 김경미,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 18~19세기 양반여성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학』 제28권 4호, 2012.
- 김동전, 「조선후기 호적중초에 나타난 제주여성」, 『제주여성사』 I,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09.
- 김보림, 「개항기 재조선 서양인의 일상생활과 한국문화 인식의 분화」, 『역사교육』 제125집, 역사교육연구회, 2013.
- 김상민, 「서양문헌에 나타난 한국: 정형화된 이미지와 사실의 간극」, 『동국사학』 제49집, 동국사학회, 2010.
- 김성은, 「한말 일제시기 엘라스 와그너(Ellasue C. Wagner)의 한국여성교육과 사회복지사업」, 『한국 기독교와 역사』 제41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4..
- 김진각, 「뮐렌도르프의 조선문명개화론」, 『역사교육』 46, 역사교육연구회, 1989.
- 김현숙, 「개화기 정부 고용 서양인들의 고용실태와 일상생활」, 『한국근현대사연구』 34,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 김현숙, 「서양인 여행기에 표상된 ‘공존·공생’의 조선 사회상」, 『역사와 담론』 vol. 54, 2009.
- 김홍수,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종교 이해」, 『한국 기독교와 역사』 제19호, 2003.
- 김희영, 「제국주의 여성 비숍의 여행기에 나타난 조선 여성의 표상」, 『동학연구』 제 24집, 한국동학학회, 2008.
- 김희영, 「오리엔탈리즘과 19세기 말 서양인의 조선 인식-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26, 경주사학회, 2007.
- 노용필, 「개화기 과부의 재가와 천주교」, 『한국사상사학』 22, 한국사상사학회, 2004.
- 류대영, 「국내 발간 영문 잡지를 통해서 본 서구인의 한국 종교 이해, 1890~1940」,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6호, 2007.

- 박경, 「개화 지식인들의 조혼(早婚)에 대한 인식-□독립신문□의 논설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16집, 2012.
- 박보경, 「기독교 선교가 초기 한국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 『선교와 신학』 제13집, 세계선교연구원, 2011.
- 박일영, 「한국 샤머니즘에 대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대응 태도 비교 연구-파리 외방전교회와 성베네딕도회 오틸리엔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21집, 2010.
- 손종목, 「개항기의 한성내 외국인 거류 경유」, 『한국사 연구』 28호, 1980.
- 손정목, 「開港期 漢城 外國인거류의 과정과 실태」, 『향토서울』 제38호, 서울특별시 편찬위원회, 1980.
- 손정숙, 「구한말 험버트(Homer B. Hulbert)의 대한인식과 그 활동」, 『이화사학 연구』 22, 이화사학연구소, 1995.
- 손철배, 「서양인이 본 한국과 한국인」,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3』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역사와 비평, 1999.
- 송재용, 「구한말 서양인이 본 한국 의례 일고찰」, 『동양학』 36,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2004.
- 신복룡, 「서세동점기의 서구인과 한국인의 상호인식」, 『한국문학연구』 제2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4.
- 신형식, 「일제초기 미국선교사의 한국관-Griffis의 Corea, The Hermit Nation을 중심으로」, 『일제식민지 지배초기의 사회 분석』 1, 이화여대한국문화연구소, 1987.
- 여동찬, 「개화기 불란서 선교사들의 한국관」, 『교회사 연구』 5, 한국교회사 연구소, 1987.
- 오인영, 「개화기 주한 서양인들의 생활상」, 『동양학』 제35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4.
- 오인영, 「서양인이 본 한국, 한국인」,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이해』,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국학자료원, 2003.
- 오정우, 「韓末 朝鮮의 對英修交 考察」, 『전북사학』, 전북사학회, 2012.
- 왕한석, 「개화기 서양인이 본 한국문화: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중심으로

- 로」, 『비교문화연구』 4, 서울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1998.
- 윤종란, 「19세기말 조선의 안방을 찾은 미국 여성의 욕망- 여선교사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Lillias Horton Underwood)를 중심으로-」, 『史林』, 수선사학회, 2009
- 이광린, 「‘비숍’여사의 여행기」, 『진단학보』 71'72합, 진단학회, 1991.
- 이광린, 「헨리엇의 한국관」, 『한국근현대사연구』 제9집, 한울, 1998.
- 이덕주, 「한국교회 초기 부흥운동과 여성-1903년 원산 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와 역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 이배용, 「서양인이 본 한국근대사회」, 『이화사학연구』, 이화사학연구소, 2001.
- 이배용, 「개화기 서양인 저술에 나타난 한국여성에 대한 인식」, 『한국사상사학』 제 19집, 한국사상사학회, 2002.
- 이배용, 「19세기 개화사상에 나타난 여성관」, 『한국사상사학』 제20집, 한국사상사학회, 2003.
- 이영아,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의 인종적 특질 연구 : 새비지 랜도어 (Arnold H. Savage Landor)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Corea or Cho-sen :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을 중심으로」, 『Homo Migrans』 3, 이민인종연구회, 2010.
- 이정순, 「한국에 온 여성 선교사들(1888년-1855년)의 삶과 사역에 관한 고찰-미 북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미남장로교회와 캐나다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2012.
- 정동귀, 「미국인의 대한국관 - 태도」, 『현암신국주박사환갑기념논총』, 동국대, 1985.
- 정연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서양인의 한국관 : 상대적정체성론· 정치사회 비판론·타율적개혁불기피론-」, 『역사와현실』 34, 한국역사연구회, 1999.
- 정혜은,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 동향과 전망, 2007 - 2013」, 『여성과 역사』 제19집, 2013.
- 최덕수, 「개항기 서양이 바라본 한국인· 한국역사」, 『민족문화연구』 제30집,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7.
- 최숙경, 「개화기 서양인이 바라본 한국인, 한국역사」, 『민족문화연구』 제30집,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7.
- 최종고, 「구한말의 주한 프랑스인 사회- 『뫼텔주교일기』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27, 한국교회사 연구소, 2006.
- 한규무, 「게일(James S.Gale)의 한국인식과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1898~1910년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1995.
- 한승홍,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과 사상」,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소식』 Vol.5, 1991.
- 한철호, 「개화기 관료지식인의 미국 인식-주미 공사관원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2005.
- 허동현, 「근· 현대 서양인의 한국관」, 『국제한국학연구』 5, 명지대학교국제한국학연구소, 2011.
- 홍이섭, 「歐美人의 韓國女性觀 : 19世紀 韓國關係 歐文 文獻을 中心으로 한」, 『아세아여성연구소』 Vol.1,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62.

3. 학위논문

- 박혜수, 「언더우드 부인의 선교활동 연구: 남편 언더우드에 대한 협력과 이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변혜정, 「歐美人의 눈에 비친 舊韓末 女性像과 男女差別」,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오현주, 「릴리아스 호튼(Lillias Horton)의 한국 문화 및 한국 근대화 이해와 선교 활동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영미, 「개화기 서양인 여행자들이 본 한국여성」,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주혜나, 「19세기 조선시대 여자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